



BURBERRY

London, England

BURBERRY.COM

Style 조선일보

APRIL 2016 vol.139



cartier.co.kr

Amulette de Cartier

Cartier



RALPH LAUREN

RALPHLAUREN.COM/COLLECTION



LOS ANGELES, 2016



MICHAEL KORS

현대 무역센터점 신규 오픈 MICHAELKORS.COM



44

24

Style 조선일보

Cartier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까르띠에의 마스코트 주얼리인 아틀레틱 드 까르띠에 컬렉션 중 기묘세 골드 제품이다. 태양을 머금은 디스크 모양은 은은하게 피쳐-가는 빛의 울결을 느끼게 한다. 조약돌을 닮은 매혹적인 원형 펜던트로 자물쇠처럼 잠금장치를 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문의 1566-7277



- 14 하이브리드의 진화, 디지털 놀이터를 즐겨야 하는 이유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첨단 기술과 스마트 기기들이 극단적인 시각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창조자인 인간이 하기 나름 아닐까.
- 16 PERFECT APPEAL 골드 케이스와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한 강렬한 남성 워치 컬렉션.
- 18 SHINING SWEETS 자신만의 의미를 담은 섬세한 레이어링을 위한 작고 사랑스러운 주얼리 컬렉션.
- 20 TRUE SOUND 당신의 까다로운 삼마인을 충족시킬, 품격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4선.
- 22 THE MOST PRECIOUS 강렬하면서도 미묘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더없이 반짝이는 하이 주얼리, 그 아름다움의 새로운 가치.
- 24 STYLE GAME 이번 시즌, 쿨한 남자들의 핫한 기록. 유쾌하고 빈전이 있는 스타일 게임이 시작됐다.
- 32 FRAME FEVER 2016 S/S 선글라스 리스트.
- 33 MARINE ELEGANCE 막스마라(Max Mara)가 제안하는 품격 있는 오션스 무드 컬렉션.
- 34 A SPECIAL FRIENDSHIP 평화강독 소피아 코폴라와 까르띠에가 만났다. LEO ATTITUDE 토즈의 레오 클램프 슈즈.
- 35 SPRING SHADOW 따사롭게 내려앉은 봄 햇살처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자연스레 깃든 2016 S/S 랑방컬렉션 액세서리.
- 36 LADY DIOR AS SEEN BY 한국 작가 4인을 포함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빛나는 창조적 협업의 결실, 다음 서울 부티크에서 열리고 있는 <Lady Dior as Seen by>전을 소개한다.
- 37 DESIGN YOUR OWN SHOES 로베르 콜레저리의 아이코닉한 슈즈를 나만의 스타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 38 TIME TO PACK 당신의 여행길에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가볍고 튼튼하며 디자인까지 세련된 럭셔리 트롤리.
- 39 MODERN LUXURY TAILORING 프렌치 감성과 이탈리아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하는 브로이어 컬렉션.
- 40 SPRING GARDEN 산뜻하면서도 매혹적이며 부드러움을 가득 담은, 짧은 봄을 위한 향수 컬렉션.
- 41 COMFORTING PERFECTION 사철이 내놓은 민감성 피부 솔루션은 컴포팅 모이스처라이저, 라 솔루씨옹 10이다.
- 42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추천하는 화장품 리스트를 고려해 신뜻한 봄을 맞이하자.
- 43 AMAZING CREAM 지난 1월, 시슬리아 크림이 '시슬리아 랭데 그랄 앙타-아주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론칭했다.
- 44 건축가의 아름다운 와이너리 와인 애호가들의 와이너리 여행과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세계 와이너리의 건축 작품을 소개한다.



10

Style 조선일보

Issue.139 April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FEEL THE ROSE

여성상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컬러, 핑크와 로즈를 품은주얼리 컬렉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뭇잎 모양에 옐로우와 핑크 스톤을 세팅한 페달 네크리스 6백만원대 **타사키**, 핑크 컬러 유색석을 볼드하게 세팅한 주얼링 2백만원대 **루시에**, 핑크 골드에 탁틴 컷에미사스트와 루비얼리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무사 컬렉션 아이링 2천만원대 **볼가티**, 플랫 컷가넷의 자연스러운 이빨다음이 돋보이는 골로 디 물이네 가넷 펜던트 3백만원대 **포알디오**, 핑크 컬러 오팔과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올라드 드 까르파에 브레이슬릿 2백만원대 **까르파에**, 레드 컬러 가넷을 세팅한 리파인드 라벨라운 가넷 링 2백만원대 **타사키**, 핑크 컬러 스톤을 화려하게 세팅한 유로 링 2백만원대 **루시에**, 에디터 베이진



프로 그라피카 박인주

Fashion MAKEUP THE BAG

백을 꾸미는 방법이 나날이 진화한다. 핸들에 두른 스카프나 백 침팬 아나나 인종맞은 리본 장식의 보타이로도, 백에 붙이는 스티커로도 나만의 백을 디자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컬러풀한 투톤 컬러 포인트의 톨메트 토트백 32x25cm, 1천만원대, 화이트 가죽 소재로 만든 플라워 참 80만원대 모두 **델보**, 핸들 한쪽에 검은 트윙글리 스크 스카프 20만원대 **에르메스**, 팝아트적인 색상이 돋보이는 꽃무늬 키링 4만원대 **로저 비비에**, 안에 놓인 브로딩 백 모티브의 참 75만원대 **델보**, 레온과 오리엔트, 시카모양의 참 각 9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화이트 진저팬 참 38만원대 **발레스트라**, 화이트 닷팅 백 30x22cm, 3987만원 **렌디**, 실크 보타이 20만원대 **에르메스**, 가방에 걸 수 있는 고리장식의 키링 가격 미정 **사벨**, 백드립터 스티커를 항상 회전 키링 4만원대, 무지개 가죽 스티커 25만원 모두 **안아 한드미치 by 10 프로소 코요**, 칼리토 블랙 백 스트랩 1백34만원 **렌디**, 가방 앞에 놓인 아나나장식 참 각 75만원 모두 **클롬보 비아 델라 시가**, 에디터 **이재민**

장영진, 정아영, 김기영, 이시진, 김민서, 박인주, 박인주, 박인주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모던 감성의 이탈리아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몰테나엔씨 소름 새 단장

세련미와 모던한 감각을 지향하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몰테나엔씨(Molteni & C.)가 한국 진출 1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으로 재단장한 소름을 선보였다. 20세기 초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이탈리아의 명문 가구업체 몰테나 그룹은 주가용 가구 브랜드 몰테나엔씨, 사무 가구 브랜드 우니노, 주방 가구 브랜드 다다를 그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샘 계열사 한샘백스스가 지난 2005년부터 몰테나엔씨를 독점 유통해왔다. 한샘백스스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주방 가구 브랜드 다다(Dada)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샘 플래그십에 새 단장한 소름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몰테나엔씨는 서울을 비롯해 지방에 지리한 소름을 새 단장하고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신제품 17종을 포함해 20종의 가구를 함께 야심 차게 내놓았다. 이탈리아 디자인의 전설 조 폰티(Gio Ponti) 사리조와 스타 디자이너 로돌포 도르도니가 런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는 첼시(Chelsea) 소파와 풀햄(Fulham) 침대, 실용적이면서도 멋진 모듈 가구 시스템 등 볼거리가 많다. 지상 2층 공간에 수려하게 펼쳐진 소름은 세계 디자인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피트리샤 우르쿨라가 인테리어에 참여한 도쿄 소름을 모티브로 삼은 정갈하면서도 강렬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한샘백스스 관계자는 '새 단장 작업으로 크게 달라진 또 다른 점은 하나의 공간에 이것저것 다 놓아놓은 식이나 가구를 활용해 여러 공간으로 나눔으로써 실재 주거 공간처럼 이쁜 느낌을 준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집에 가구를 배치했을 때 어떤 느낌을 낼지 감을 잡기도 쉽다'고 설명했다. 소름 곳곳에 보이는 덴마크의 세계적인 조명 브랜드 루이스 폴센(Louis Poulsen) 제품과 몰테나엔씨 가구의 조화도 매력적이다. 문의 02-543-5083 에디터 고성현



Beauty FROM NATURE

피부와 화장품에 대해 논할 때 끊임없이 식물성 성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이 지닌 강력한 힘과 그 어떠한 성분보다 피부 친화력이 뛰어난 자연 성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민한 피부를 위한 순한 화장품은 언급할 때도, 강력한 인티에이지 효과의 기능성 화장품은 거론할 때도 늘 빠지지 않는 식물성 성분의 힘, 그 영원한 매력은 물론 식물성 화장품은 소개한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전달하고 이 수분과 보습력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인텔리카 미네랄 주원료로 한 **복사목 인텔리카 히드라 바이탈 젤**, 인텔리카는 프루보스에서 단 며칠 만에 수십 미터가 자라는 놀라운 식물로, 스스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강력한 보습력을 겸비한 가볍고 산뜻한 아쿠아 콜링 젤 타입으로 건조한 비건이 좋아하는 밤낮에 사용하면 제각기 50ml 49,800원, 식물성 아로마 코즈메틱 브랜드의 정수를 담은 **달랑 8-플라워 베타 아로마틱 에센셜 오일 엘릭시르**는 로즈, 아이라리, 인모르셀, 라벤더 등 진귀한 아열대 기후 아로마 꽃 추출물을 농축해 담아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인티에이지 타입의 오일이다. 신비로운 꽃 향이 트리트먼트 내내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선사하고, 피부 정화 작용과 함께 독소를 배출해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15ml 23만5천원). 에코스트와 코스메 비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벨비타 로즈 플로럴 워터**는 유기농 장미 꽃잎이 무려 2천송이가 담겨 있다. 진정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나 하루 100% 유기농 정수만을 사용한 민감성 피부에 효과적. 토너로 사용하거나 미스트로 활용해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뿌려주면 향기로운 장미 향과 함께 그 효과 또한 확실히 볼 수 있다(200ml 32,800원). **오일 세이지 마사지 클린징 밀크**에 함유된 세이지 추출물은 로마 시대부터 유래된 차유의 약초다. 과도한 피부를 제거하고 세안 후 촉촉함을 더해 피부의 수분분 밸런스를 맞춘다. 로즈 타입 클린저를 얼굴에 도포하고 마사지를 하면 모공 속에 정해진 수분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250ml 7만7천원). **멜로민스 리페팅 트리트먼트 페이스 오일**은 100% 순수 식물 추출물을 담은 페이스 오일로,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건조한 피부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블루 오일의 생가 버하는 파슬리, 허슬을 대체하는 로즈우드 오일을 함유한 이 오일 허니밤 발라도 생가 갈도는 건조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30ml 6만2천원). 녹차에 대한 아로마테라피의 노하우를 모두 집약한 **아로마테라피 티닌 레스프스 스킨 리뉴얼 크림**에는 고귀한 차를 녹차와 함께 사용한 티닌 성분을 통해 강력한 인티에이지 효과를 선사한다. 은은한 녹차 향은 아로마테라피 효과까지 선사해, 녹차의 고귀한 에너지를 느껴볼 것(50ml 48만원). 에디터 **김유진**

프로 그라피카 박인주

Exhibition
(김광석을보다展) + (제인 맥아담 프로이트)전



되지 못한 5집 이야기, 그를 그리워하는 팬들과 작가 아나나, 화가 박영현, 캘리그래피 최후사미 등의 아티스트들이 한정판 예술 작품도 전시돼 있다. 김광석이 운영하던 '고리개'를 재현해 관람객들이 음악을 들으며 추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경주 우양미술관에서는 정신분석학의 대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손녀이자 현대미술의 가장 루치안 프로이트의 딸인 제인 맥아담 프로이트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제인 맥아담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 리비도 이론, 의사와 무의식의 지형학적 구조와 같은 중추부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영감을 받아 예술적 사유를 시작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작가 스스로도 이 작업을 통해 치유받았다고. 지난해 크리스티 경매에서 최고가(5천6백29만달러)를 기록해 관심을 받은 루치안 프로이트와는 한동안 교류를 하지 않았던 그녀는 그가 죽기 전에 극적인 회담을 했고, 당시의 교감을 통해 자신감 섞인 변화를 내보냈다. 전시는 5월 8일 까지. 문의 www.김광석을보다.com, www.wooyangmuseum.org 에디터 고성현



TOD'S KOREA INC. 02-3448-8201



MONTBLANC

for him Selection
 유행은 돌고 돈다. 1980년대 봄을 타고 불어온 복고 열풍이 남성 컬렉션에 녹아들었다. 단 하나의 아이템만으로도 레트로 무드를 즐길 수 있다면, 이 중 당신의 선택은?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프레이밍에 가죽 장식을 덧대어 빈티지한 멋을 살린 보잉 샌드라스 1백30만원대 가르다에.

가벼워 편한 것은 터이 25만원 판매용.

레이스로 이루어진 브라운 컬러 셔츠 1백40만원, 니트 타이 가격 미정 모두 바버리.

반바지는 느리(비바) 줄리 파, 바 바틀 가격 미정 판매용.

오렌지와 블루 컬러가 조화로운, 밴드도 장식 스니커즈 68만원 토즈.

스물, 플라워 패턴의 스터드 장식이 조화로운 이크조트 무드의 슬림은 1백4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브렌드의 상징인 인트레치아토 기점으로 만든 컬러 라인 포인트 플러쉬, 34X24cm, 1백30만원대 보타가 매다.

빅토리아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앤티크한 느낌의 패턴 반바지 63만원 자참사.

엘로와 블랙 컬러로 이루어진 그래픽 패턴이 돋보이는 사각 쇼퍼백, 35X35cm, 90만원대 프라다.

세련미와 우아함, 아스틴 아서, 감수면 에티어 아저면

가위와 손타래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카프스 링크 34만원 에르메네제쥬도 제나.

은빛 플라워 자수가 오리엔탈 무드를 자아내는 자켓 제리 3백40만원대 구미.

생생한 꽃무늬 자수 자켓 포인트 타이 가격 미정 다들.

바버리 02-4019-7691 보타가 매다 02-515-5840 구미 1577-1921 가르다에 1566-7277 디올 02-513-0300 빌렌티노 02-6905-3610 발디 02-3467-8935 에르메스 02-544-7722 링방 울트 02-6905-3496 말바우어 1544-5393 토즈 02-3438-6008 에르메네제쥬도 제나 02-310-3218-1507 자참사 02-517-7560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프라다 02-3218-5331

Montblanc Heritage Chronométrie and Hugh Jackman

몽블랑 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와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In homage to the European explorer and his need for utmost precision, Montblanc pays special tribute with the Montblanc Heritage Chronométrie Quantième Complet Vasco da Gama Special Edition featuring a full calendar and a blue lacquered constellation around the moon phase, which shows the exact same night sky above the Cape of Good Hope as Vasco da Gama observed it in 1497 on his first journey to India. Visit Montblanc.com



입체적인 마름모 패턴이 인상적인 레더 재킷 5백90만원대 미우미우.

강렬한 레드 색상인 라벤 다테일이 돋보이는 에트르 28만원대 패셔니카 코리야 by 10 코르소 코모.

행랑새의 인공피복 플러워 패턴을 장식한 닷셀 백. 30x22cm, 3백만원대 패셔니카 코리야.

반티지한 무드의 타이거 헤드 장식과 뽀족한 스키크 다테일이 어우러진 IT 스트랩 슈즈 1백28만원대 구찌.

연타닥닥 울려 들릴듯 시원한 보헤미안 스타일의 67만5천원대 보타가 베네통.

다양한 컬러의 패턴을 조합해 이색적인 무드를 연출하는 스카프 1백만원대 루이 비통.

for her Selection

과감한 포인트 아이템으로 봄을 즐겨보자. 레트로 무드를 반영한 플라워 패턴과 강렬한 컬러로 이루어진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전통적인 꽃무늬 패턴이 사랑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바클라지 백 2백95만원대 발렌티노.



캔디 컬러 스티트 장식과 와이드한 플러워 패턴으로 화려함을 선사하는 하이톱 스니커즈 1백89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레이스를 연상케 하는 프라임이 독특한 선글라스 40만원대 돌체앤가부나 by 록스타카 코리야.

SERPIENTE 유행형 아사시테 아이템. 감수된 에디션 100000.



브라운의 아이코닉한 실드 프로그래밍을 가진 폴딩 백을 1백만원대 에트르.



서로 다른 문양들이 스텔라이프 패턴을 이룬 이국적인 무드의 재킷 3백40만원대 에트르.



특유의 2차노 메탈 버클. 침금장치 포인트의 미리슬 백. 27x20cm, 2백40만원대 샬비토레 페라카모.

칼라와 모양이 서로 다른지만 완벽한 한 쌍을 이루는 드롭 이어링 60만원대 디올.



가죽을 꼬아서 지퍼 메탈을 구현한 워킹 다테일의 패턴을 플레트 스즈 2백72만원대 발렌티노.

구찌 1577-1921
디올 02-513-0300
샤넬 02-543-8700
셀렌스 02-540-0486
펜디 02-2056-9022
루이 비통 02-3432-1854
록스타카 코리야 02-501-4436
미우미우 02-3449-5908
발렌티노 02-543-5125
보타가 베네통 02-515-2717
에트르 02-544-7722
에트르 02-511-2573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샬비토레 페라카모 02-2140-9664



DYLAN AND HOPPER PENN, LOS ANGELES

FAY.COM

Fay

MEN 신세계백화점 본점 6층 OPENING SOON WOMEN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MEN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층



하이브리드의 진화, '디지털 놀이터'를 즐겨야 하는 이유

EVOLUTION OF CREATIVE TOOLS

'융합화'와 '지능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기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첨단 기술과 스마트 기기들이 극단적인 시각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창조자인 인간이 하기 나름이 아닐까.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는 쑥쑥 자라는 기술은 덩치 크고 굵은 종들은 멸종시키고, 기민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고 했다.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두려워하고 피하는 대신 익히고 즐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봄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준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그 대국을 방송으로 지켜봤거나 소식을 접한 이들 중에는 기계=도구로 여겼던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듯하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만든 도구가 이제는 일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용할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퍼뜩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을 터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랄프 왈도 에머슨이 인간이 기술에 종속되는 상황을 빗대어 남긴 명언이 떠오르기도 한다. "사물들은 인간에 얹혀 있다. 그리고 사람을 타고 간다." 사실 자동화(automation)의 위협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그 메시지가 경고성이든, 옹호성이든 간에 각종 연구와 보도가 여러 형태로 꽤 나와 있었다. 예상될 수순이지만, 요즘 서점가에는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책까지 재발간될 정도로 인공지능(AI) 관련 서적이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가 빠아울지도 모르는 인류의 직장과 미래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내 직업은 안전할까", "나도 기계를 군주로 모셔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물음이 쏟아지고 있다.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을 쓴 실리콘밸리 사업가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틴 포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서빙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처럼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 임금 고숙련 노동 영역에서도 딥 러닝 기법으로 무장한 AI 변호사나 의사, 교수 같은 출중한 로봇 인력이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최근호에는 '로봇이 마케팅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글이 실렸는데, 현재 절반 이상의 마케팅 분야에서 기계가 일상적인 업무의 3분의 1 정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한다. 심지어 마케팅 관리자의 업무도 기계가 10% 이상 대신할 수 있다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용지대는 없다는 얘기에 무계중심이 기술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 탄생시킨 기계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그렇지만 인류사에서 사회, 문화, 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특정 직무 영역이 도태된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역사학자들이 꼽은 소소한 예만 봐도 전화교환원, 번사, 숯쟁이, 석판인쇄공, 촛불 관리인, 실루엣 화가, 양봉가 등이 있다.

혼돈과 변혁의 시대를 이끄는 융합 트렌드와 창조적 파괴
도태와 소멸의 역사는 비단 인간의 직업 세계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와 기업의 역사 속에서도 흥망성쇠가 무수히 목격돼왔다. 컴퓨터 기술의 가속적인 발달과 디지털 흐름이 지배하는 21세기 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

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할 세대가 될 공산이 크다. 모든 장르, 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혼돈과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융합의 시대'이기도 하다. "도대체 우리의 이군과 적은 누구인가?"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새롭게 결합되는 작금의 시대에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일,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다. 심지어 적이면서 동지인 경우도 있다. DVD를 대여해주던 넷플릭스(Netflix)의 변모를 보라. 동영상 스트리밍을 소화하는 플랫폼 기업이자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무려 5천만달러를 투자한 콘텐츠업체로 변모해 영화 제작사들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고객사인 동시에 그들의 경쟁자로 부상하지 않았는가.

첨단 디지털 디바이스의 세계에서도 융합 트렌드는 '속도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트북과 휴대폰을 결합한 '패블릿' 싸움이 한창이더니, 언젠가부터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 생태계를 둘러싼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고, 요즘에는 태블릿과 노트북의 경계를 무너뜨릴 만한 가용할 제품들이 출현하고 있다. 여러 기능을 융합한 '스마트한' 신제품이 등장하면 기존 제품 중에는 소위 카니발라이제이션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엄연히 '창조적 파괴'로 성공을 거두는 예가 많다. 그저 이것저것 닮은 식의 융합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요소에 올인하는 전략이다. 20세기 중반 IT업계에서 놀랄 만한 '창조적 파괴'를 보여준 기업 중 하나는 소니였다. 덩치가 크지만 음질이 좋은 진공관 라디오가 최고로 여겨지던 시절, 소니는 잡음은 많지만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한 트랜지스터라디오로 반전을 꾀했다. 음질을 약간 포기하면서 '몸집 줄이기'에 집중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애플 같은 혁신 기업들이 창조적 파괴의 대명사가 됐다. 일례로 플래시메모리 타입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 셔플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기능과 LCD를 버리면서 평하게 음악 듣기에 승부수를 걸어 시장을 압도했다. 모토로라는 카메라폰을 선보이기는 하되, 화소수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한때 레이저폰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제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21세기에는 '창조적 파괴'의 수명이 단축된 듯하다. 하이테크 시대의 미래를 전망한 책 <월드>의 저자들은 모든 기술이 주기적으로(반년이나 1년) 2배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기하급수 기술(exponential technology)을 주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만큼 똑똑한 기기가 많아졌고, 상향 평준화가 이뤄진 만큼 사실 기능어든 디자인어든 웬만큼 '튀지 않아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 이처럼 치열한 생태계에서 21세기형 창조적 파괴를 일으킬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그 답은 누구도 모르지만, 이동성(mobility)이 뛰어난 융합형 기기가 대다수의 마음을 끌어당길 것이란 점만은 변치 않을 듯하다.

아이패드 프로, 서피스 프로, 갤럭시 탭 프로...하이브리드 랩톱의 대세는?

이런 맥락에서 요즘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융합형 기기를 눈여겨볼 만하다. 아이패드(iPad) 프로, 서피스 프로, 갤럭시 탭 프로 등 랩톱(노트북 PC)과 태블릿을 합친 하이브리드 제품군이다. 요즘 신형 스마트폰 화면이 꽤 커졌다고는 해도 문서 작성이나 디자인 작업을 하기에는 턱도 없는 상황에서 동영상이나 게임은 물론 PC에서 가능했던 일부 전문적인 업무까지도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동성을 갖춘 제품이니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가 돋보인다. 이 제품이 지난 해 말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찬사를 받은 요소는 데스크톱 수준의 CPU라든지 선명한 레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애플 펜슬과 '스마트 키보드'였다. 픽셀 단위의 정확도를 내면서 때로는 볼펜처럼, 때로는 색연필처럼, 때로는 붓처럼 작동할 수 있는 '만능' 펜슬인 애플 펜슬은 아이패드 프로의 존재감을 빛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존재의 이유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사용자가 손가락을 쓰는지 애플 펜슬을 쓰는지 감별할 수 있는 '스마트함'은 물론이요, 펜촉이 얼마나 세게 눌리고 있는지 감지해 섬세한 음영도 표현할 수 있다. 펜 프로를 가리켜 '전자 스케치북'이라 부르는 게 아니다. 당연히 이 디지털 스케치북을 위한 온갖 앱이 나와 있다. 요즘 인기가 높은 '피그먼트(Pigment)' 앱을 활용하면 아트는 물론이고 어른도 애용하는 실감 나는 컬러링 북이 되고, '프로크리에이트(Procreate)' 앱으로는 극도로 정교한 작업도 가능하다. 작업한 이미지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메모 앱을 활용하면 애플 펜슬로 손쉽게 글도 쓸 수 있다. 얇게 접을 수 있는 스마트 키보드는 글을 끄적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를 노트북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답게 스마트 커버와 합친 덕에 별도의 키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아이패드 프로에 부착하면 충전이 되므로 충전용 어댑터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여행이나 출장 등 이동이 잦은 사람들의 경우에 스마트폰 따로, 랩톱 따로 챙길 것 없이 '프로만' 있으면 대응으로 쓸 수 있다. PDF를 편집할 수 있는 PDF 엑스퍼트 같은 앱을 활용하면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된다. 심지어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도 여유롭게 끄적일 수 있다. 문서 위에 필기나 서명, 문서 첨삭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앱이 유료(10.99달러)임에도 인기를 끄는 이유다.

인류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를 창출하는 '증강의 시대'로 만들기

이처럼 '이종교배'를 거듭하는 똑똑한 디지털 기기는 결국 많은 이들이 경탄해야지않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수준 높은 인공지능까지 장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인간의 노동력을 위협하는 '로봇 군주' '로봇 탐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지는 인간의 몫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인류 대다수가 해야 할 일은 '흐름'에 적응하되 휩쓸리지는 않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21세의 '뉴노멀'인 디지털 변화를 어느 정도 흡수해야 미래 사회에서도 태도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자동화의 위협을 막연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강(augmentation)'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볼 적이다.

밴스대 교수이자 MIT에 디지털경영센터 연구위원인 토머스 데이브포트는 노동이 제조업 게임이며 기계가 점점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대신, 오히려 고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점점 더 똑똑하고 영리해질 기계들과 '협업'을 펼치고, 그들의 역량을 활용해 업무를 축소하기보다는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요즘 빈번히 화두가 되는 빅데이터를 예로 들어보자. 흔히 '소비자 통찰'이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통해 구매 행동에 대한 정보가 낱알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영역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단순한 분석의 차원을 넘어 그 데이터를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큰 맥락에서 해석하는 일은 컴퓨터가 능숙하게 해내지 못하는 증강의 영역이라는 논리다. 이 같은 '증강' 행보를 위한 구체적인 보법은 자마다의 역량이나 입지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인간과 컴퓨터가 섞이고 도울 수도 있는 '융합'의 환경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Dark & Gold

(왼쪽부터) **플랑망 레플루션 스페니에 그랜드 데이브 8데이즈** 프랑수아르 일주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스페니에(Semainier) 워치는 이들이 의미하는 대로 8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추었다. 3개의 태엽 바늘과 티타늄 밸런스를 담은 뛰어난 기능의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골드 케이스 안에 담긴 여러 겹으로 리어워링한 인쇄적인 다이얼이 눈을 사로잡는다. 5천원원대, 문의 02-6905-3367 **피르미자미니 투다 1950** 7.8mm의 얇은 두께에도 고유의 골드 매력과 지니고 있는 피르미자미니의 대표 워치, 클래식한 골드 워치의 매력을 차분하게 담은 모델이다. 4개의 리크를 별도로 만들어 케이스에 부착하는 방법을 적용해 편안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계 장인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2천원원대, 문의 02-310-1737 **브라게 마린 컬렉션 5817**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모두 로즈 골드로 이루어진 마린 컬렉션의 남성용 워치. 기묘세 웨이브 패턴이 스포티한 워치 디자인과 아우라져 특유의 클래식한 느낌과 활동적인 느낌을 모두 담았다. 스크류 록 크라운을 장착해 100m 방수 기능을 갖추고, 517GG 칼리버를 장착했다. 4천원원대, 문의 02-6905-3571 **오메가 드 빌 아이버진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에뉴얼 컬렉션 18K** 세드나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진중한 다크 네이비 다이얼을 매치해 더욱 매력적인 클래식 워치. 월과 날짜를 모두 알려주는 에뉴얼 컬렉션 기능을 갖추어 드레스 워치로 제각이다. 4천원원대, 문의 02-511-5797 **워블로 클래식 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킹 골드** 브랜드 고유의 칼리버 킹 골드로 완성한 골드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을 매치한 강렬한 디자인의 모델. 바 타입 인덱스와 심플한 날짜창, 무광 블랙 다이얼까지, 심플하지만 인상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남성들을 위한 워치다. 워블로 고유의 매력과 클래식함을 모두 담은 모델이다. 4천원원대, 문의 02-2118-6208

perfect **Appeal**

최고를 의미하는 골드.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선명한 골드의 오라를 품으면 그 가치는 전혀 달라진다. 골드 케이스, 그리고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한 강렬한 남성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White & Gold

(왼쪽부터) **브라게 클래식 컬렉션 5207** 브라게 클래식 컬렉션을 대표하는 5207 워치. 복잡한 듯한 다이얼이지만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6시 방향의 레트로그래프 초침, 12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 창, 로마자 인덱스는 고아한 느낌마저 준다. 브라게의 정수를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모델. 2천7백원원대, 문의 02-6905-3571 **카르띠에 클래식 드 카르띠에 워치** 프랑수아르 열성을 뜻하는 골드의 모티브는 시계의 크라운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범시계나 탁상시계 등을 위한 정형화 때 열성을 물리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영감을 얻어 독특한 형태의 크라운을 탄생했다. 골격을 위한 새로운 인형우스 무브먼트인 1847MC 칼리버를 장착했다. 4천원원대, 문의 1566-7277 **플랑망 발라베 컬렉션 5817**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델인 발라베를 새롭게 해석한 뉴 발라베 컬렉션. 상징적인 문패이자, 컬리버 컬렉션 세운드 핸드 기능을 갖는다. 언더 리크 코렉터를 이용해 시간 조정도 편리하다. 스와치 그룹의 대표 워치인 하이 칼리버 케이스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브랜드인 만큼 소장 가치가 높다. 6천원원대, 문의 02-6905-3367 **오메가 드 빌 아이버진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세계적인 워치 메이커인 오메가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은 드 빌 아이버진 컬렉션. 마티스 인종을 받은 코-엑시얼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3을 적용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담은 무브먼트를 품고 있다. 3천원원대, 문의 02-511-5797 **플기리 워드 솔로탈포 워치** 독특한 팔각 케이스가 특징인 워드 솔로탈포 워치를 보다 슬림하게 38mm 사이즈로 재해석한 골드 케이스 워치. 케이스의 독특한 모티브를 그대로 차용해 디자인한 골드 브레이슬릿 디테일도 멋스럽다. 보다 특별한 골드 브레이슬릿 워치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디자인. 자체 제작 와인딩 무브먼트인 솔로탈포 칼리버를 장착했다. 5천원원대, 문의 02-2056-0171 **에디터 베마진**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 EAST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 AK플라자 분당점

shining Sweets

작고 섬세하며 컬러풀한 스톤,
갈게 늘어뜨리는 진주 비드 네크리스,
피부에 착감기는 애니멀 모티브까지. 더하면 더할수록
매력이 높아지는, 자신만의 의미를 담은 섬세한
레이어링을 위한 작고 사랑스러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우부터 순서대로) 화려한 컬러 스톤을 매치해 다양한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는 **까르띠에 아틀라드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스톤과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그린 컬러 크
리스프라이즈 XS 모델 3백만원대, 블랙 오탁스 XS 사이
즈 2백30만원대, 선명한 블루 컬러의 라피스 라줄리 스몰
모델 7백만원대, 손목 위에서 작은 팬던트가 시선을 사로
잡는 레드 컬러 카바리안과 핑크 컬러 오벌의 **까르띠에 아
틀라드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각 2백만원대, 깃털 아메
로 차르르 흘러내리는 드레이프가 아름다운 **부세론 뽀폰 이
어링**.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이 마치 스카트 자락처럼 살랑
이며 눈길을 끈다. 가격 미정. 나비 모티브의 블루 사파이
어를 세팅한 **타파니 인원드 드라곤볼리 키 펜던트**. 사랑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의미처럼 선물하기 예
도,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에도 제격이다. 1천4백만원대,
영롱한 빛을 담은 **타사키 남양 흑진주 네크리스**. 1천만원
대, 희귀한 옐로 다이아몬드를 정중앙에 세팅한 **타파니 인
원드 링**. 메인 스톤 주변에 마치 꽃 장식처럼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화려한 느낌을 선사한다. 4천만원대, 선명한
블루 컬러 팬던트가 심플하면서 여성스러운 **타파니 이원마
린 솔리스트 펜던트**. 블루 컬러 아메리칸을 다이아몬드가
감싸고 있는 형상에서 고전미가 느껴진다. 1천만원대, 브
렌드를 상징하는 에우-구일 컬렉션의 다양한 모티브가 모두
담겨 있는 **부세론 에-구일 스텝오브 네크리스**. 부엉이와 카
멜레온, 어우원송이까지 모두 세심하게 완성했다. 가격 미
정, 흑진주와 핑크 컬러 진주 2개를 붙여 볼륨감 있게 표현
한 **타사키 팔렌스 유니티드 링**. 음악의 조화를 상징한다.
1천7백만원대, 이코아 진주에 붉은빛 가넷을 마치 스타드
처럼 세팅해 독특하게 완성한 **타사키 라피라드 라멜리온 가
닛 링**. 2백70만원대, 핑크 컬러 루비를 섬세하게 세팅한 별
모티브의 **부세론 카 루비 링**. 7천만원대, (왼쪽 아메) 핑크
컬러가 깊도는 7mm 이코아 진주를 비드 세팅한 **타사키 롱
네크리스**. 5백만원대, 에디터 베이진

까르띠에 1566-7277 타사키 02-3461-5558 부세론
070-7500-7282 타파니 02-547-9488



EST. 1976 MUNICH GERMANY



MCMWORLDWIDE.COM #MUNICHISCO



the most Precious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스톤인 다이아몬드. 이 반짝이는 돌이 장인들의 손길을 따라 서정과 운율을 담은 리듬을 만들고, 하이주얼리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 여성의 피부를 따라 극상의 아름다움을 새겨낸다. 강렬하면서도 미묘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더없이 반짝이는 하이주얼리, 그 아름다움의 새로운 가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그리프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독특한 마카즈 컷의 다이아몬드가 총총하게 이어져 있는 리운드 & 마카즈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은 39,91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쏟아내는 빛의 요리가 다르다. 마치 그물처럼 세팅해 다이아몬드 사이로 피부가 은근히 비치는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다.

그리프 카리사 네크리스 최고의 다이아몬드만을 고집한다고 알려진 영국주얼리 브랜드 그리프, 총 32,037개의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카리사(Carissa) 컬렉션 앞티 세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는 마치 중세 유럽의 귀족 무도회를 연상케 할 만큼 정교한 디자인이다.

그리프 루비 브로치 고대 유물에서 발견된 듯 클래식한 디자인의 루비 브로치는 고 장재만으로도 강렬하다. 지금 가장 소장 가치 높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는 9.827ct 루비를 세팅해 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컬렉션이다. 문의 02-2256-6810.



(왼쪽부터) **사벨 화인주얼리 리옹 발루스만 네크리스** 하이주얼리 컬렉션 중에서도 극도의 볼륨감을 자랑하는 네크리스. 다양한 컷과 카팅의 다이아몬드를 세심하게 세팅한 것은 물론, 체인을 따라 39646개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더해 볼륨감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도록 고안했다. 브릴리언트 컷부터 라운드 컷, 바켓 컷, 패이 컷, 트라이앵글 컷은 물론 클래식한 빈티지주얼리에서만 볼 수 있는 로즈 컷을 하 나의 네크리스에 담은 것은 하이주얼리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다. 문의 02-3442-0062

끼르피에 하이주얼리 맨더 시크릿 워치 비밀을 담고 있는 시크릿 워치와 하이주얼리의 만남. 핑크 골드와 담수 진주, 유색석과 카메오 기법으로 새겨 넣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맨더 모티브는 클래식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다. 장인들의 세공력과 프랑스 파리 원동주얼리 브랜드로서의 자부심, 워치메이커로서의 긍지까지 모두 담은 작품이다. 문의 1566-7277

끼르피에 하이주얼리 링 영행행이 느끼는 라벤더 컬러 제이드를 세팅한 링. 마치 로마 시대 거룡처럼 정교하게 스톤을 떠받치고 있는 이차형의 링 형태가 매력적이다.

사벨 화인주얼리 리옹 프로베레 네크리스 네크리스를 따라 흐르는 심플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중상에 시자 모티브를 더한 네크리스.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실재로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완성했다. 시자의 앞발 아래로 다이아몬드 세팅이 드롭형으로 피부를 따라 흐르게 디자인해 더욱 여성스럽다. 에디터 배미진

STYLE GAME

이번 시즌, 쿨한 남자들의 핫한 기록. 다양한 프린트와 디테일이 눈길을 끄는, 유쾌하고 반전이 있는 스타일 게임이 시작됐다. *photographed by zo sun hi*



(왼쪽) GG 로고 패턴과 플로럴 자수가 조화로운 롱 코트 6백34만5천원, 그린 컬러 팬츠 81만원, 퍼플 트리밍한 블로퍼 97만원 모두 구찌, (오른쪽) 체크 재킷 3백76만원, 팬츠 84만5천원, 코만틱한 리플 장식의 셔츠 89만5천원, 골드 레이스업 슈즈 1백35만원 모두 구찌.

(왼쪽) 꽃과 새 패턴 재킷 가격 미정, 피자피를 연상케 하는 네이비 컬러 셔츠 가격 미정, 네이비 팬츠 가격 미정, 태슬 장식 로퍼 1백60만원 모두 루이 비통, (오른쪽) 오리엔탈 무드의 자수로 장식한 수니어 재킷, 레드 컬러의 새틴 베이시블 셔츠, 그레이 팬츠, 화이트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왼쪽) 록 시크 무드의 패치워크가 돋보이는 레더 재킷 가격 미정, 레드 체크 셔츠 1백만원대, 네이비와 레드 컬러 스트라이프 톱 가격 미정, 블랙 데님 팬츠 70만원대 모두 **생 로랑**. (오른쪽) 블랙 컬러 핀스트라이프 슈트, 화이트 핀스트라이프 셔츠, 블랙 핀스트라이프 타이 모두 가격 미정 **자형시 by 라카르도 타시**.



(왼쪽) 섬세한 레이스로 재직한 재킷 5백20만원, 화이트 레이스 플레킷 셔츠 가격 미정, 블랙 팬츠 1백50만원, 블랙 레이스업 슈츠 1백50만원 모두 **버버리**. (오른쪽) 네이비 컬러 슈트 2백30만원, 화이트 레이스 셔츠 가격 미정, 마스타드 컬러 니트 타이 가격 미정, 블랙 레이스업 슈츠 1백50만원 모두 **버버리**.



(왼쪽) 브라운 레더 재킷 4백60만원대,
베이지 셔츠 가격 미정, 데님 팬츠
57만원대, 벨크로 장식
스니커즈 89만원대 모두 토즈.
(오른쪽) 식물 모티브 패턴이 이그조틱
무드를 자아내는 코트와 레오파드 패턴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드리스 빈 노트.
데님 팬츠 34만5천원 타임 옴므, 브라운
찰리 트라이 빙 슈즈 80만원대 토즈.



(왼쪽) V넥으로 감성 파인 베이지
재킷, 셔츠차림 이너로 연출한
아이보리 체크 패턴 재킷, 그레이
팬츠, 벨트 찰리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네즈도 제나 꾸뛰르 컬렉션 by
스타일스 필라티. (오른쪽) 화이트
찰리 재킷, 화이트 셔츠, 화이트한 빛의
화이트 팬츠, 그레이 타일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네즈도 제나
꾸뛰르 컬렉션 by 스타일스 필라티.



(왼쪽) 딘 그린 컬러의 가죽 재킷 가격 미정, 옐로 컬러의 오렌지 컬러가 조화를 이룬 스트라이프 니트 90만원대, 스트라이프 롱 가격 미정, 블루 컬러 팬츠 1백만원대, 그레이 컬러 레이스업 슈즈 60만원대 모두 프리다, (오른쪽) 귀여운 토끼 모양의 패턴을 더한 에메랄드 컬러 니트 80만원대, 그레이 컬러 셔츠와 롱 모두 가격 미정, 블루 컬러 팬츠 1백만원대, 타원형 펀칭 디테일을 가미한 레이스업 슈즈 1백만원대 모두 프리다.



(왼쪽) 자수를 새긴 블루톤 2백90만원
 발렌티노, 밧줄 장식의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베이시 팬츠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그린 플로럴 패턴 재킷,
 화이트 롱, 밑단에 그린 컬러 포인트를
 가미한 화이트 팬츠, 블랙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리다 02-3442-1830
 에르메스-레즈도 재나 02-518-0285
 토즈 02-3438-6008
 드리스 반 노론 02-310-5307
 타임 옴므 02-544-7722
 바버니 02-3485-6536
 발렌티노 02-2015-4653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에르메스 02-544-7722
 생 로망 02-3438-7628
 자행시 by 라카르도 타시 02-517-7560
 구찌 1577-1921

헤어 이메뉴
 메이크업 홍현정
 모델 장가을, 이요백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frame Fever

이미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도 많은데 매 시즌 또 다른 디자인, 또 다른 컬러의 선글라스를 구입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만큼 다채롭고 재미난 디자인의 선글라스가 매년 쏟아지듯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더욱 과감해진 컬러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패션 피플들의 지갑을 열게 할 2016 S/S 선글라스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에서 시계방향) 투명한 프레임에 다크 그린 컬러의 빅 프레임 선글라스 21만5천원 **진돌몬스터**, 이젠 시즌 키 컬러인 파스텔 핑크와 블루 컬러를 믹스한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준 메탈 선글라스 21만원 **FUB**, 얼굴을 작고 가볍게 연출하는 크고 인위적인 프레임의 핑크 선글라스 40만원대 **로에베 by 다리F&S**, 레드 로퐁의 동그란 프레임에 글리터와 비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파스텔 핑크 선글라스 40만원대 **미유미유 by 루스타카 코리아**, 메탈 프레임으로 제작한 캐주얼 아이 디자인으로 렌즈가 중앙에 떠 있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주어 유느하면서 시원한 무드를 연출하는 화이트 비즈 선글라스 43만5천원 **마크 제이렌스 by 시빌로**, 청량함이 느껴지는 투명한 프레임에 블루 스트라이프 패턴을 더해 멋스러운 마린 룩을 완성해줄 캐주얼 아이 선글라스 80만원대 **루이 비통**, 매 시즌 다양한 버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더블 브리얼 컬렉션의 서머 버전으로, 선명하고 시원한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메탈 선글라스 가격 미정 **디올**, 렌즈와 골드 메탈 프레임 사이에 투명한 프레임에 대해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라운드 선글라스 20만원대 **토즈 by 다리F&S**, 에디터 권유진

다리F&S 02-513-2380 디올 02-513-0300 루이 비통 02-3432-1854 루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시빌로 02-514-9006 진돌몬스터 1600-2126 FUB 070-8692-8452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이나스틸트 이서영, 권유진

Marine elegance



블랙과 화이트의 차분한 조화, 스트라이프 패턴과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의 조우는 마치 청명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럭셔리 요트를 연상시킨다. 막스마라(Max Mara)가 제안하는 품격 있는 오션스 무드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코트와 함께 시작된 60여 년의 여정

역사가 깊은 브랜드일수록 오랜 노하우와 정인 정신이 깃든 아이코닉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막스마라의 캐주얼 코트처럼,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타임리스 클래식이란 키워드로 정리된다. 특히 막스마라의 창립자 아킬레 마라모티(Achille Maramotti)가 1950년대에 발표한 첫 컬렉션에서 선보인 캐주얼 코트는 등장한 이후부터 중상층 여성을 위한 상징적인 코트로 전성기를 누렸으며, 이후부터 1970년대에는 맥시 길이로 변신을 시도하고, 1980년대에는 넓은 칼리를 더하는 등 계속 진화해왔다. 또 지금까지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으로 자리할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수많은 트렌드의 홍수 속에서도 캐주얼 코트가 여전히 요지부동의 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칫 평범해 보이는 베이시 라인임에도 직접 옷을 걸쳐보면 옷태가 확실히 남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건 몰라도 코트만큼은 꼭 고가 라인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색상이 같아도 묘하게 더 우아하게 느껴진다거나, 길보기에 특별한 실루엣이 아닌 듯해도 입었을 때 완벽한 핏팅감을 자랑하기 때문. 실제로 이 캐주얼 코트는 막스마라 컬렉션이 열리는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 동안, 주요 매체 기사를 포함한 스타 일리스트 등 패션 인플루언서들의 구매율이 높은 만큼 인기 있는 아이템! 이처럼 캐주얼 코트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브랜드가 추구하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정성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다.

차분한 컬러와 고급스러운 소재로

완성된 뉴 시크 마린 룩

"스타일은 복잡한 일을 말하는 간단한 방법이다"라고 말한 프랑스 태생의 세 계적인 작가 장 콕토(Jean Cocteau). 막스마라의 2016 S/S 컬렉션은 장 콕토의 말처럼, 아주 심플하면서도 우아함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시크 마린 룩을 전파한다. '마린 룩'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블루 색상과 볼드한 스트라이프 대신, 차분한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오션스의 선처럼 얇은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한 것. 실제로 장 콕토의 드로잉에서 영감을 받아 인크 같은 짙은 블랙과 태왕에 비엔 듯한 페이퍼 화이트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했으며, 사인, 삼벌, 수기 신호, 별, 세일링 노트는 이번 시즌 메인 프린트로 표현되었다. 그 외에 블랙과 화이트 색상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그래픽 패턴을 구현, 흔하지 않은 우아한 감성의 오션스 무드를 완성했다. 또 새로운 패미니티의 미학을 반영한 마린 룩을 제시했는데, 세일러 감성의 롱 드레스와 슬릿 데이드레스를 가미한 카스 스타일의 미니 웨이, 스타일과 실용성 모두를 강조한 저지 소재의 아이템 등이 멋스럽게 어우러진다. 그 외에도 헤어밴드나 선글라스, 스카프, 네크리스 등 해양 산업을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 라인도 함께 소개한다. 막스마라의 다양한 컬렉션은 지난 2월, 새롭게 단장한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본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백화점 18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7-8326 **에디터 이서영**

1 바다에서 모티브를 얻은 막스마라 2016 S/S 컬렉션 광고 비주얼 이미지, 2 신세계백화점 본점 막스마라 매장, 3, 4 정교한 레이저 커팅이 돋보이는 캐주얼 컬러 라지 사이즈 백 1백70만원대, 화이트 토트백 1백30만원대.



SPORTY MARINE LOOK

뜨거운 햇볕 아래 피부를 보호해주며, 기온이 떨어질 땐에도 윈드 브레이크처럼 요긴하게 입을 수 있다. 속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시스루 소재의 화이트 후드 점퍼 2백40만원대, 블랙 스트라이프 패턴의 슬리브리스 톱 50만원대 모두 **막스마라**.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MATURE MARINE LOOK

원피스 하나로도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리조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특유의 뽀뽀한 재질이 돋보이는 캔버스 소재로 제작한 핀스트라이프 프린트 원피스 1백만원대, 블랙과 화이트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는 청취한 굵이 매력적인 서머 샌들 1백20만원대 모두 **막스마라**.





© Andrew Dunham

A Special Friendship

영화감독 소피아 코플라와 까르띠에가 만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오른쪽 손목 위에 까르띠에의 시계인 플래 드 까르띠에가 위치가 채워졌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서로를 꼭 닮은 이들의 만남.

소피아 코플라, 까르띠에의 친구가 되다

까르띠에는 지난 3월 1일, 영화감독이자 이 시대의 스타일 아이콘인 소피아 코플라와 친구가 되었다. 셀러브리티가 브랜드의 뮤즈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좀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뮤즈란 한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을 때 쓰이지만, 서로에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거나, 둘 사이에 닮은 점이 있을 때는 친구란 말이 더 잘 어울린다. 바로 까르띠에와 소피아 코플라처럼 말이다. 이 둘은 특유의 세련미와 시크함을 동시에 지녔다. 소피아 코플라는 까르띠에의 친구가 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까르띠에 제품을 소장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반지는 물론, 탱크 워치, 파리 누벨라그, 트리니티, 러브 브레이슬릿, 그리고 팬더 링이 그것이다. 평생시 영화 촬영장에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을 때도, 특별한 날 각테일 드레스를 차려 입을 때도 언제나 까르띠에의 주얼리를 하는 소피아 코플라. 그녀에게 까르띠에란 어떤 존재인지 물었다. “까르띠에는 디자인의 진가를 아는 창조적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까르띠에는 최고를 의미하고, 스스로를 단장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스타일은 굉장히 쿨하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장식적이지 않아요. 저는 까르띠에의 클래식함은 세월을 초월한다

고 생각해요. 또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중 하나죠.” 까르띠에와의 인연에 대해 말하는 그녀의 손목 위에는 새로운 또 하나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바로 플래 드 까르띠에 워치. 어느 옷이나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벽시계나 탁상시계 등을 와인딩할 때처럼 열쇠를 돌려 시간과 날짜를 맞추는 아날로그적인 조작법까지 갖춘 이 시계가 소피아 코플라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은 것이다. “플래 드 까르띠에 워치는 오픈스룩과 이브닝 웨어 어디에나 두루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더 잘 갖춰 입을 것처럼 보이게 해주죠. 이 시계가 주는 적당한 무게감과 마음에 들어요. 시계를 착용하고 있다는 묘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죠”라고 말하며 플래 드 까르띠에 워치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또 그녀는 “플래 드 까르띠에를 차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스타일이 좋다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 전 이 시계가 남녀 공용이라는 점이 특하나 마음에 들어요”라며 본인의 스타일과 플래 드 까르띠에 워치의 완벽한 조합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재능과 독창성, 스타일, 특별한 시각과 목소리를 지닌 소피아 코플라. 그녀가 사랑에 빠진 플래 드 까르띠에 워치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버전으로 소개된다. 31mm와 35mm 사이즈의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 브레이슬릿과 레더 스트랩 등 두 가지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이지연

1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감독이자 스타일 아이콘, 소피아 코플라. 2, 3 까르띠에의 새로운 아이콘이 시계, 플래 드 까르띠에의 플래드(ble)는 프랑스어로 열쇠를 뜻한다. 카타린 벽시계의 열쇠를 돌려듯, 와인딩할 때마다 클래식한 무드를 느낄 수 있다.



2

Leo Attitude

지금 이 기사를 읽기 전, 해시태그 #todsband, #todslomania를 미리 검색해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토즈 밴드는 무엇이고, 토즈에서 새롭게 출시한 레오 클램프 슈즈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말이다.

12인의 남자, 그리고 토즈

토즈 밴드? 이 낯선 단어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새로운 밴드의 이름인가? 하고 말이다. 하지만 토즈 밴드는 토즈라는 브랜드 이름하에 세계 각국의 스타일 아이콘이 모여 각자의 개성에 맞게 토즈 제품을 더해, 그들의 스타일로 표현하고 해석하기 위해 모인 하나의 가상 그룹이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럼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어 인스타그램에 접속, 해시태그 #todsband를 검색해볼 것. 익숙하지 않은 얼굴의 모델이 저마다의 스타일에 맞춰 토즈의 제품을 해부씩 들고, 신고 있지 않은가? 이게 바로 토즈가 지향하는 새로운 마케팅의 한 축이다. 바로 유명한 셀러브리티를 모델로 기용하기보다는 일반인처럼 보일 수 있는 명사들을 섭외해 그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토즈 제품을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소개하면 제품 이미지가 확립되지는 않고, 더욱 풍부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이러한 이미지나 영상을 보면서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이 슈즈를 신었네? 나도 한번 신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토즈의 이러한 스타일 발상은 바로 지난 시즌인 2015 F/W 컬렉션부터 시작되었다. 그 첫 신로단은 바로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의 딸과 작가 헤밍웨이의 증손녀 등 이른바 ‘연친딸’로 구성된 여성들이 모여, 새롭게 선보인 웨이브(Wave) 백을 소개한 것. 그리고 이번 시즌엔 12명의 남자가 토즈 밴드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영화 <강박이>, <소셜 네트워크>에 출연한 영국 출신 배우 겸 감독 맥스 민겔라와 인테리외 디자이너 워고 소제이, 스킨리 조한슨의 쌍둥이 동생인 한터 조한슨, 톱 모델 페이 왕 등 이름만 들어도 일 만한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데일리 루틴 속에서 그들의 개성과 워트를 더해 토즈의 신제품인 ‘레오 클램프’ 슈즈를 매치했다. 토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tods, #todsls, #todslomania, #todsband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레오 클램프에 대한 피드를 볼 수 있다.

새로운 아이콘, 레오 클램프

토즈는 아이콘화한 스타디셀러 슈즈에 시그니처 디테일을 더해, 한층 더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부여했다. 토즈 밴드를 통해 선보인 레오 클램프가 바로 그것. 고미노 드라이빙 슈즈와 어퍼 부분에 대한 메탈 디테일을 일컫는 레오 클램프는 단단하고 기능화적인 형태로 전통적인 금속 주조 기법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사실 가죽과 금속이 결합하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슈즈의 가죽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가 힘들기 때문. 하지만 토즈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장인 정신을 통해 이 난도 높은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실제로 레오 클램프 장식은 특수 가공 처리를 통해 은은하게 빛날 뿐 아니라 오랜 연구를 통해 손상 없이 가죽과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레오 클램프는 골드와 브래스, 칸메탈, 우드 등 네 가지 컬러이며 슈즈의 소재와 컬러에 따라 어울리는 컬러로 매치한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리본 장식의 고미노 슈즈가 다소 아쉬웠던 이들에게 레오 클램프로 강인한 포인트를 준 새로운 스타일의 고미노 슈즈가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3438-6008 에디터 이지연

1 밴드 더 클래식의 베이스를 맡고 있는 올 시아(모던의 두 아들인 클로드(Claude)와 루이스(Louis)). 2 토즈의 새로운 아이콘이 시계인 레오 클램프. 3 토즈 밴드 이름하에 모인 12인이 레오 클램프를 신은 모습.



3



2

Romantic Classic

(왼쪽부터) 랑방 특유의 여성미와 우아함을 강조하는 리본을 주요 콘셉트로 삼은 오픈 랑방 라인, 부드러운 가벼운 고급 가죽 소재가 특징으로, 가장 얇게 앙양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가죽 디테일을 더해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표현했다. 반짝이는 가죽 위 리본은 패턴을 구현한 블루 색상의 아델리 스푼 솔더백 73만5천원, 핑크 컬러의 아델리 스푼 솔더백 73만5천원, 그레이 컬러의 아델리 미디어 솔더백 93만5천원 모두 랑방컬렉션 액세서리.



Urban Casual

(왼쪽부터) 편안하고 자유로운 버킷 백 스타일로 제안하는 에드워 컬렉션, 부드러운 내추럴한 느낌의 가죽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멀티 컬러 스와로브스키 장식의 폰보이는 아이보리 컬러 에드워 드로우스트랩백 73만5천원, 블랙 색상의 에드워 백백 1백15만원 모두 랑방컬렉션 액세서리.



Spring shadow

따사롭게 내려앉은 봄 햇살처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자연스레 깃든 2016 S/S 랑방컬렉션 액세서리,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리본 장식과 퀘팅 소재는 물론, 테슬 디테일과 오색의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등 특유의 여성스러운 무드를 물씬 풍기는 아이템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Feminine Mood

(왼쪽부터) 리저드 엘보 스가죽으로 제작된 핑크 카사 장지갑 29만5천원, 앙엽 진주 장식의 포인트인 옐로 컬러의 가요리 옐로 소재의 다이얼과 카드 지갑 21만5천원, 블루 색상의 다이얼과 장지갑 23만5천원, 랑방 피리의 장식자 전노 랑방의 이니셜인 JL 퀘팅 디테일을 가방 당에 적용하고 같이 조잡이 가능한 체인 스트랩으로 실용성을 더한 벨라 미디어 솔더백 89만5천원, 벨라 미니 크로스백 73만5천원 모두 랑방컬렉션 액세서리.



Modern Chic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 브랜드 특유의 이콘코 감성을 표현한 구조적인 패턴과 세이프가 돋보인다. 체인 스트랩이 부착된 실버 색상의 클래식 클러치 49만5천원, 가죽을 코어 만든 그린 컬러의 지퍼 클러치 앞쪽 포켓에 장식한 테슬로 포인트를 준 아이보리 컬러의 안가 클러치 59만5천원, 카운터 혹은 가늘거나 클러치에 장식할 수 있는 테슬 침 장식 11만5천원 모두 랑방컬렉션 액세서리. 문의 02-726-4167 에디터 이지연





백리번디 (Birchington Special), 2013
대량생산된 오브제 조각, 플라스틱, 스텐 등을 만드는 미국의 젊은 작가(1983년생, 만화책, 잡지, 파티용품점에서 모든 공신품과 제품 패키지, 플라스틱 강아지용 장난감까지 다양한 소재를 접해왔으며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는 기법을 자주 구사한다.)



수잔 헤후나(Susan Hefuna), Bag Drawing, 2012
이집트-독일계 혈통의 작가로 배경 때문에 늘 경계의 문화에서 살아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한다. 레이다 디올 백의 골격을 연상케 하는 알루미늄으로 구조된 조각의 존재감이 강렬하다.



이완, 한국 여자(Korean Female), 2016
대학 졸업 뒤의 미래를 걱정하는 20대 중반의 여성. 낮에는 근무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 여성이 서 있는 곳은 새벽이 될 때까지 불 꺼질 일이 거의 없는 한교의 평범한 길거리다.

Lady Dior as seen by

갤러리스트로 커리어 첫 행보를 내딛을 만큼 아트를 사랑했던 천재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 50대 초반에 유명을 달린 짧은 생애였지만 오프 쿠티르의 세계를 평정했던 그의 컬렉션을 이루는 정체성의 근간도 예술이었다. 영국의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애지중지했다는 디올의 상징적인 백 레이디 디올을 매개체로 한 흥미로운 아트 컬렉션에서도 그러한 DNA를 느낄 수 있다. 한국 작가 4인을 포함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빛나는 창조적 협업의 결실, 디올 서울 부티크에서 열리고 있는 <Lady Dior as Seen by>전을 소개한다.

지난해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던 <에스프리 디올 - 디올 정신(愛)을 접한 이들이라면,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디자이너의 경이로운 예술혼에 반했다면 아마도 이 브랜드의 아트에 대한 순정을 다분히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 청담동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디올 부티크에서 열린 <Lady Dior as Seen by>라는 작지만 알찬 전시에도 관심을 가졌을법하다. 디올은 건축, 사진, 조각, 비디오 등 장르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엄선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손잡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핸드백 레이디 디올(Lady Dior)을 소재로 작업을 해온 이력이 있는데, 그 결실을 눈으로 만끽할 수 있는 아트 컬렉션 전시다. 세기의 패션 디자이너였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아트 애호가이기도 했던 크리스찬 디올의 정체성을 계승해온 브랜드답게 이 전시는 단순한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으로 불리거리는 서운할 정도로 남다른 품격과 예상을 뛰어넘는 흥미를 선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가방을 재해석하는 관점과 소재를 선택하고 버무리는 방식 등이 워낙 다채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든든한 호평을 의지한 채 올해도 <Lady Dior as Seen by>가 서울을 찾아왔다. 최정화, 황단, 수 씨니 박, 이완 등 새롭게 디올의 아트 컬렉션에 합류한 걸출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 4점과 더불어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찬사를 받은 17점의 조각과 8점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작품이 꽤나 인상적인 오라를 발산한다. 전시장 입구에 다다르면 오른쪽 벽면에 걸려 있는 '무제' 작품은 언뜻 검은색 위주의 추상화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핸드백의 다양한 면면을 숨쉴 있게 조합해낸 사진이다. 뷰티와 정물 사진을 주로 찍는 도쿄 태생 사진작가 고이치로 도이(Koichiro Doi)의 2012년 작품으로 미학적 쾌감을 준다. 중국의 신성 첸만(Chen Man)의 작품 '예약된 자존심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강한 흡인력을 뿜어낸다. 머리 한기운테로 탄 가르마와 이마에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독특한, 토속적인 느낌의 여인이 묘한 눈빛을 한 채 레이디 디올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데, 자신만의 비주얼 언어가 매혹적이다. 눈을 왼쪽 벽면으로 돌리면 평범한 듯 비범한 분위기로 은근히 시선을 잡아끄는 사진 작품이 또 하나 있다. 화원, 소쿠방, 식당 등이 들어선 거리를 배경으로 근사한 블랙 원피스를 입고 레이디 디올 백을 든 젊은 여성. 주목받는 한국 작가 이완의 한국 여자라는 작품이다. 시간대와 배경이 다른 사진을 합성한 작품으로 경쟁 사회에서 '스펙'에 압도되면서 '무한 질주'하는 젊은 세대의 초상을 담아냈다고. 이완 작가 말고도 한국 작가 3인의 2016년 작품 저마다 다른 매력을 뽐낸다. 플라스틱, 비닐 등 일상의 사물을 활용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예술을 인지시키는 '그만'의 언어로 잘 알려진 최정화 작가는 강철을 용접한 유기적인 패턴이 인상적인 작품을 내놓았다. 투명한 백에 단추를 수놓아 만개한 매화를 아름답게 표현한 황단 작가의 '영원한 뮤즈'는 곧 떨어져 사라질 꽃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유한함, 일상 속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음미해볼 것을 주문한다. 구조적인 느낌이 범상치 않은 '그물 무늬의 레이디'는 러시아 구성주의 영향을 받아 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다는 젊은 재미 작가 수 씨니 박에 대한 큰 기대를 품게 한다. 이 밖에도 소재나 기법, 메시지 등에서 신선한 감흥과 미학적 만족을 안겨주는 작품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는 이 전시는 디올 서울 부티크(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6)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린다. **에디터 고성연**



최정화, 테초에 그려낸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려라니: 끝없는 세상, 2016
재미가 긴 이 조각은 스스로를 발장시켜 확장된 구조로 이어지는 유기적 패턴을 활용해 완성했다고. 이는 만다라(만두고, 불교 등에서 우주 법계를 상징하는 그림)의 핵심이기도 맞닿아 있다고 한다.



황단, 영원한 뮤즈(Eternal Muse), 2016
단추라는 수수한 소재를 활용해 시간적으로 탁월한 작품을 빚어냈다. 작가는 절정의 순간을 맞은 매화도 언젠가 지고 사라지고 말 유일한 존재라는 젊은 인간의 존재에 맞닿아 되새기라고 조언한다.

Design your own sh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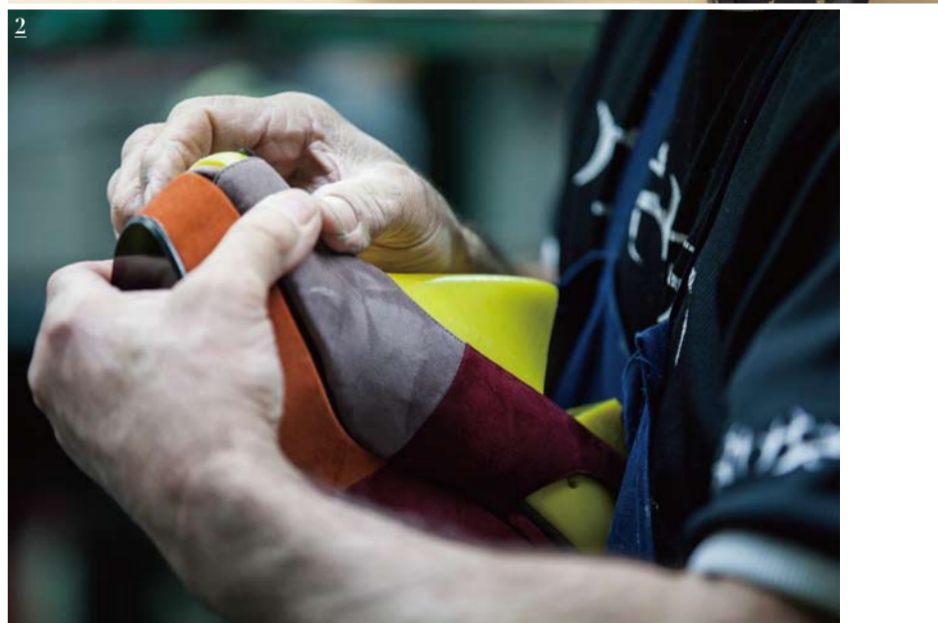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제품을 소장한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매력이 있으니까. 자기에 직접 디자인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특별한 것이다. 로베르 끌레제리의 아이코닉한 슈즈인 '얼비나(Irvin)'와 '일고(Ilgo)'를 나만의 스타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특히나 이번 MTO 서비스는 브랜드 탄생 이후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이벤트라 소장 가치가 더욱 높다.

페미닌과 맥스쿨린, 기능성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로베르 끌레제리

"로베르 끌레제리의 여성 슈즈 컬렉션이 남성적인 무드의 모티브에서 시작된 것처럼, 남성 컬렉션 역시 여성 컬렉션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합니다. 이처럼 중간 베이스 라인을 사이에 두고 테니스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을 오가는 것이 바로 로베르 끌레제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로베르 끌레제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롤랑 무레(Roland Mouret)의 말이다. 불과 2년 전, 로베르 끌레제리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되기 전만 해도 이 브랜드는 해외에 나가거나 직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브랜드였다. 그런 이유로 일반인들에게 당연히 생소했으며, 이 브랜드를 안다는 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세련되고 시크한 취향을 지닌 여성이라 간주되기도 했다. 도대체 이 브랜드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 두꺼운 마니아층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 로베르 끌레제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건축적, 중성적, 그리고 유니크함이다. 단순하고 네모난 굽이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스타일인데, 얼핏 투박해 보일 수 있어도 막상 신어보면 신의 아름다움을 살린 특별한 디자인이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뽀족하고 아찔한 하이힐이 아님에도 묘한 여성스러움이 묻어나기도. 사실 로베르 끌레제리가 탄생한 1880년대는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인 시기다. 그래서인지 브랜드가 추구하는 여성상은 그 시대를 반영한 자신감 있는 여성이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슈즈 역시 매니시한 분위기의 마이크로 솔 로퍼다. 플랫폼 슈즈를 신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 신었을 때는 편안한 것 같으나 조금만 움직여보면 그 무게 때문에 발이 극도로 피로해진다. 하지만 로베르 끌레제리 마이크로 솔은 브랜드만의 오랜 노하우와 독창적 기술력을 접목한 마이크로 솔 플랫폼을 장착,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또 로베르 끌레제리가 산발을 만들 때 편안함을 가장 중요시하기에 프랑스 최초로 '굿이어Welt' 기법을 도입해 슈즈를 만들어왔다. 이는 최고급 소재와 제조 기법 중 하나로, 가죽 밑창을 접착제로 붙이지 않고 구두 밑창 중간에 들어가는 중창에 일종의 테두리인 Welt를 두른 뒤 가죽 밑창과 함께 여러 차례 실로 꿰매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과거의 장인 정신과 현대의 기술력을 접목한 견고한 디자인을 통해 1백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슈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나만을 위한 스페셜 오더 서비스

롤랑 무레는 한 인터뷰를 통해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신발은 성격이나 취향 등 타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빌리 와일더의 <뜨거운 것이 좋아>(1959년 제작) 영화 속에서는 등장인물의 존재감과 캐릭터를 구두로 묘사했을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매개체로 쓰이기도 한다. 실제로 신발은 실용성에 입각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명품 슈즈 브랜드들은 남들과 다른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이 직접 디자인해 만들 수 있는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로베르 끌레제리도 브랜드 론칭 이후 처음으로 MTO 서비스를 진행하며 이 데일에 합류했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얼비나와 일고슈즈를 원하는 컬러와 가죽 소재, 마이크로 솔의 색까지 정할 수 있게 된 것. 이 프로젝트는 오는 4월 4일부터 강남점 4층의 팝업 공간에서 약 3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보디는 총 두 가지 가죽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플레인 가죽과 옥스퍼드화에서 볼 수 있는 구멍 뚫린 퍼포레이티드 테일일의 가죽, 총 열다섯 가지 스타일의 어퍼 보디 중 고를 수 있으며, 마이크로 솔 또한 네 가지 컬러로 준비된다. 이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세 가지 베스트셀러 아이템인 '딜런(Dylan)'과 '자바(Java)', '날로(Nalo)'를 새롭게 해석,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만을 위한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479-1556 **에디터 이지연**



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오픈을 기념해 진행되는 MTO 서비스는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3주간 이어지며, 로베르 끌레제리의 인기 모델, 얼비나와 일고 모델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다. 총 열다섯 가지의 어퍼 보디 중 하나를 고르고, 네 가지 컬러의 마이크로 솔 중 선택해 매치하면 된다. 사진은 얼비나 슈즈 2. 로베르 끌레제리 슈즈가 제작되는 과정. 3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롤랑 무레, 중성적인 디자인과 건축적인 라인을 중시하는 기본 콘셉트에 그의 모던한 감성을 담은 감각적인 스타일을 선보인다. 4 마이크로 솔 파카가 만들어지는 과정. 5, 6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재해석한 신세계 익스클루시브 아이템. 프랜차이즈의 화이트 로퍼 '자바(Java)'와 클래식한 보디가 돋보이는 '딜런(Dylan)'.

Time to pack

좋은 구두를 신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말이 있듯이, 멋진 캐리어는 당신을 멋진 여행지로 이끌어줄 것이다. 당신의 여행길에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가볍고 튼튼하며 디자인까지 세련된 럭셔리 트롤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면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외부 충격에 강한 최고급 알루미늄으로 만든 7R 마스터. 바퀴에는 볼 베어링-미운트드 열티 휠 시스템을 적용해 매끄러우면서도 조용한 회전과 이동이 가능하다. 40X55cm, 1백29만원 대 **하트만**, 루이 비통의 클래식 아이콘인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의 패시세 55. 아담한 기내 반입용 사이즈이지만서도 다양한 수납공간과 지퍼 포켓으로 꽤 많은 양의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40X50cm, 4백만 원대 **루이 비통**,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의 핸드메이드 모자이크 타일을 연상시키는 카옌 타일 프린트를 입힌 테고라이트, 항상 폴립로 필렌으로 이루어진 테고라스 소재로 제작해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 등에 강하며 가볍기까지 하다. 33X50cm, 1백10만원대 **루이**, 흔하지 않은 화이트 컬러가 눈에 띄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의 옥토타이트. 가벼운 무게와 향상된 내구성, 극대화된 내부 볼륨 등 여행용 트롤리 브랜드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생스-이트의 기술력이 집약된 것이 특징. 36X55cm, 34만8천원 **생스-이트**, 브랜드의 아이콘이었던 보아시넬 백을 닮은 캐리어. OC 체인이 장식돼 있으며 3백60도 회전 가능한 바퀴 시스템으로 안정적 인 이동감을 선사한다. 37X45cm, 가격 미정 **사넬**, 브라질 아마존에서 영감을 얻은 그린 컬러의 보사노바, 새롭게 선보이는 패딩 소재의 플렉스 디바이더 시스템은 실용적으로 내부를 나눌 뿐 아니라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36X45cm, 1백60만원대 **리모와**, 에디터 **이재민**

루이 비통 02-3432-1854 **리모와** 02-546-3931 **생스-이트** 02-3288-3770 **사넬** 02-543-8700 **루이** 02-546-8864 **하트만** 02-514-9006



▲리모와도 우완형 이스타이트 이매, 김수민

modern luxury Tailoring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 포멀과 캐주얼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고른 균형은 브로이어(Breuer)가 추구하는 바다. 프렌치 감성과 이탈리아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하는 브로이어는 1백2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온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동시대적인 감성을 편안하게 담아낸 컬렉션을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윈도페인 체크 패턴을 기미한 브라운 컬러 슈트 1백69만원대, 블루 셔츠 29만9천원, 페이즐리 패턴 타이 18만9천원 모두 브로이어.

여유로운 니스의 낭만과 세련된 파리의 스타일을 아우르는 브로이어
 눈부신 햇살과 상쾌한 바람이 부는 곳, 해안을 따라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곳, 그리고 사람과 미터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예술의 도시. 바로 남부 프랑스 최대의 휴양지인 리비에라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이다. 브로이어는 리비에라의 중심, 니스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답게 컬렉션 전반에 특유의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화려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차분한 것이 특징이다. 브로이어의 본사가 위치한 프랑스 니스와 플래그십 스토어가 자리한 파리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감성을 대표하는 두 도시다. 그 때문에 브로이어는 이 두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양식을 컬렉션 전반에 녹여냈다. 니스의 여유로운 감성과 자중해의 컬러감,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은 물론 파리의 도회적인 비즈니스 스타일이 적절히 공존하는 컬렉션이 바로 그것이다. 도시와 휴양지 어느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록을 제시하며 편안함과 품위를 잃지 않는 브로이어 스타일이야말로 모든 남성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아닐까?

진정한 '어포더블(affordable)' 럭셔리, 브로이어
 브로이어의 옷은 프랑스에서 디자인하고 이탈리아에서 만든다.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캐시미어와 실크, 리넨 등 엄선된 최상의 소재만 사용한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인다는 점이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번 시즌 브로이어가 제안하는 체크 패턴 슈트는 최상급의 뉴질랜드 메리노 울을 사용한 로로피아나 트레벨라이트 소재로 제작했다. '트레벨라이트'라는 워드 이름처럼 구김이 적고 가벼워 실용적인 기능을 더해준 소재다. 여기에 윈도페인 체크 패턴을 더해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멋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웨딩 슈트는 물론, 윈도페인 체크 패턴이 지닌 단단한 무드를 통해 예식이 끝나면 데님이나 치노 팬츠와 매치, 데일리 비즈니스 웨어로도 연출 가능하다. 매미침 브로이어에서는 웨딩 시즌을 맞아 1백50만원 상당의 슈트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5만원 상당의 브로이어 상품권과 타이틀을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번 입고 말 턱 시도 대신 활용도 높은 예복을 고민 중이라면 들려볼 것. 문의 02-2106-3436 에디터 **이재민**

RESORT FORMAL LOOK

브로이어의 DNA를 휴양지에서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니스의 바다색을 연상시키는 블루 머린 스트라이프 패턴의 슈트 1백69만원대, 화이트 셔츠 29만원대, 니트 소재 타이 18만9천원, 페이즐리 패턴 헝가치프 7만9천원 모두 **브로이어**.



▲리모와도 우완형

OFFICE FORMAL LOOK

비즈니스 슈트로 은은하게 서머 머린 룩을 연출하고 싶은 이들에게 제안한다. 로로피아나의 여름 워드인 서머 타스마-인 소재를 사용,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네이비 슈트 1백89만원대, 스트라이프 패턴 셔츠 29만9천원, 실크 블루 타이 18만9천원 모두 **브로이어**.



Spring garden

시작과 동시에 끝이 보이는 아쉬운 봄. 짧지만 매력적인 이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나만의 향취, 기억 저편에서 아슬라히 나타나는 추억의 향기다. 산뜻하면서도 매혹적인, 부드러움을 가득 담은, 짧은 봄을 위한 향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틀 포드 뷰티 네뮬리 포르토포노**, **프르테** 트루프 뷰티가 장인 정신을 담아 선보이는 최고급 라인인 프리아넷 블렌드 네뮬리 포르토포노의 새로운 컬렉션. 강렬한 파도파의 선율처럼 2배 깊은 플로럴 향이 특징이다.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이자 여행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이탤리아 정경의 따듯하게 하는 신선한 나무의 향기, 부드러운 가죽의 텍스처가 옷깃에 고스란히 스며든다. 50ml 36만원, 문의 02-3479-1436

메종 프랑시스 커징 바카리 루주 540 전체 조향사가 불리는 프랑스 커징과 프랑스의 문화를 상징하는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리가 만나 탄생시킨 특별한 향수. 바카리 탄생 2백50주년을 기념해 540°C의 뜨거운 열기에서 글과 안보트를 때린 탄생하는 붉은 바카리 루주의 고귀함을 표현했다. 천 나무와 상나무, 제스민과 사프란, 앵버그리스 같은 클래식한 소재를 사용한, 심플하면서도 기품 있는 향기가 특징이다. 70ml 32만9천원, 문의 02-514-5167

블가리 레깅에 일페라일리 데지리아 보석에서 영감을 받아 화려한 파카지에 담은 블가리의 하이 퍼퓸마리 컬렉션. 극동아시아를 상징하는 보석인 제이드(jade, 옥)에서 영감을 받아

역시 아시아를 상징하는 꽃인 매그놀리아 향기를 담았다. 중국 황실 정원의 향기를 담기 위해 장미 꽃잎의 향기를 더해 가볍고 신선하다. 화려한 보틀의 재킷으로도 존재감이 확실하고, 진정시켜주기 품 있고 우아하다. 100ml 46만6천원, 문의 080-990-8989

세르주 루테스 라 후드 베를린 선명한 레드 컬러가 눈을 매혹하는 향수. 잔설적인 야배우 마블레네 디트리히에게 영감을 받아 자적인 매력을 자신감 넘치는 장미 향기로 표현했다. 베를린에서 온 소녀라는 독특한 향수 이름처럼 차갑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전한다. 페파가 가미된 피우다라한 장미 향기는 오직 세르주 루테스만이 표현하는 노해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터치다. 50ml 16만9천원, 문의 02-514-5167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라베 베르 밀라키트 강렬한 그린 컬러의 밀라키트 소재의 파카지판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한 향수. 이집트와 로마, 러시아 귀족들에게 사랑받은 이 아름다운 스톤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에게 광활한 대지에 관한 영감을 주었고, 생광력과 에너지를 가득한 향수를 완성하게 했다. 그린 컬러의 베르 밀라키트에서는 웅장한 러시아 대륙의 광

대함을 느낄 수 있는 백합 향과 오렌지, 페타그레인, 풍위 있는 향기에 빠질 수 없는 재스민 향을 느낄 수 있다. 100ml 38만원, 문의 080-022-3332

바이레도 슈퍼 시더 나치 향수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바이레도의 새로운 컬렉션. 봄 바람에 살랑이는 삼나무의 은화한 향기를 담았다. 은근하면서도 매력적인 향취를 표현하기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심플한 파카지판용 블루 노트와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가 이어지는 연결 고리도 단순한 편. 연필을 깨를 때 느끼는 따뜻한 향기에 로즈 페탈, 베타메르의 우디 향을 더해 브랜드 고유의 여성스럽고 매력적인 향기로 완성된다. 50ml 18만5천원, 문의 02-3479-1688

에르메스 오 드 네뮬리 도레 오랜시간에서 추출한 에센스의 이름인 네뮬리. 황금빛 파카지와 성분으로도 상쾌한 느낌이 바람을 타고 흘러온다. 진한 향수보다 산뜻하고 가볍게 부릴 수 있는 향수를 원하는 이들이나, 꽃과 과일 향기를 머금은 순수한 향수, 어렵지 않은 향수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10-5174 에디터 **베미진**

여성 10명 중 8명이 민감성 피부

"당신의 피부 타입은 무엇인가?"라고 주변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본인의 피부 타입을 민감성 피부라고 답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에디터 역시 그중 한 명이다. 민감도의 기준을 10으로 볼 때 8, 9에 달할 만큼 피부가 극도로 얇고 예민한데, 쉽게 붉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적인 스트레스만 받아도 피부가 뜨거워지고 가렵아지며,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표현을 쓸 만큼 트러블에 시달리기 일쑤다. 실제로 국내 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의 피부가 민감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0명 중 8명. 사설 연구소가 16년 동안 약 9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전 세계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민감성 피부라고 여쭙고 하니, 이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은 비단 에디터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최근에는 선천적 민감성 피부보다 후천적 민감성 피부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미세 먼지와 급변하는 기후, 레이저 시술, 건조한 실내 환경, 자극적인 음식, 무분별한 각질 제거, 연고제 남용, 과음과 흡연의 반복, 과다 자외선 노출, 화학적 필링제, 맞지 않는 제품 사용 등 자주 반복되는 자극에 피부 타입이 민감하게 변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인 것. 또 생리 기간, 환절기, 겨울 등 특정 시기에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간헐적 민감성 피부도 많다. 심리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데,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대부분 피부 트러블을 호소한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다양한 경로에 의해 피부가 자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 과거에 비해 피부가 민감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 피부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 민감하다는 것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로 피부 자체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고, 장벽에 틈이 생겨 그 사이로 미생물과 유해 물질이 쉽게 침투하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평소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화장품도 자극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부가 민감해지면 보통 여러 개의 기능성 제품을 덧붙여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성분이 최대한 적게 함유된 한두 개의 제품으로 진정과 피부 장벽 강화에 힘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단 10가지 성분으로 민감성 피부를 다스리다

사설 연구소는 이런 민감성 피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왔다. 그 결과 피부 장벽 손상, 신화성 스트레스, 각종 세균의 스트레스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을 밝히고, 이 세 가지 요인이 함께 발생하면 피부 민감도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부 진정, 보호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는 지름길. 피부가 자극 요소에 노출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담긴 성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사설에서 새롭게 출시한 라 솔루션 10은 피부 기능을 개선하는 수백 가지 성분 중 단 10가지 성분만 엄선한 민감성 모이스처라이저다. 올리브에서 추출한 식물성 스킵렌은 비닐하이드라틴 담겨 역할을 해 수분 손실을 막고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글리세린 성분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폐 효과를 발휘한다. 영양 공급을 위한 시아버터 추출물은 보습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엄선한 10가지 성분 중 가장 눈에 띄어 할 성분은 실버 니들(Silver Needle). 은침차라 불리는 이 차는 중국의 6대 명차로 불리는 백차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차 성분이다. 끝에 달린 잎은만 10일 동안 수작업으로 채취한 뒤 추출한 활성 성분은 여타 활성 성분보다 3배 가까이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실버 니들은 피부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활성산소를 차단해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각질 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단백질 성분을 자극해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해준다. 라 솔루션 10의 특별한 점은 성분뿐만 아니라, 피부의 내성과 민감도, 이에 따라 나타나는 제품 효과의 완벽한 균형을 찾기 위해 무려 1백77번의 포뮬러 조합을 시도해 완성한 제품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쉽게 붉어지거나 따갑고 가려운 증상, 가렵아지고 멍하는 증상 등으로 매 시간 세심하게 다루야 하는 민감성 피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상적인 유수분 밸런스를 되찾아 외부 자극에 대항하는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고 싶다면 라 솔루션 10을 선택할 것.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피부의 구세주 같은 아이템이 되어줄 것이다. 30ml 12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comforting Perfection

현대인의 반 이상이 민감성 피부를 경험하는 시대다. 샤릴이 내놓은 솔루션은 브랜드의 첫 번째 컴포팅 모이스처라이저, 라 솔루션 10. 단 10가지 성분으로 피부 자극 없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하며 피부 자체의 힘을 길러주어 외적, 내적 자극에 모두 흔들리지 않는 피부 기초 체력을 완성할 수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ditor's Pick

완연한 봄이다. 당신의 화장대도 봄맞이 대청소가 필요할 것! <스타일 조선포인트> 기자들이 추천하는 화장품 리스트를 고려해 산뜻한 봄을 맞이하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몽블랑 레전드 스킨케어** 보틀만으로도 훌륭한 오뜨데 퍼퓸을 하는 이 향수는 이 시대의 끝간 도시 남성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그만큼 자유롭고 남성적인 감각을 더한 프라시 우디 아로마틱 향초가 매력적, 코끝을 톡 쏘는 핑크 페퍼론, 베르가모트 향을 시작으로 라벤더, 야쿠아리 아르도의 만남이 강렬한 향으로 이어지고, 샌들우드, 화이트 마스카가 만들어낸 진함이 너무나도 색하다. 100ml 11만7천원, 문의 080-800-8809. *by 에디터 권유진*

입생로망 볼림에 틴트-안-오일 15호 예쁘고 투명한, 시팅처럼 발리는 글로스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제품. 영장을 가득 품은 오일 성분을 담았지만 끈적이지 않는다. 립스틱을 바르고 그 위에 얹듯이 바르면 플러밍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맨 얼굴이라면 글로스처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6ml 4만2천원, 문의 080-347-0089. *by 에디터 배미진*

바비 브라운 롱웨어 브로우 젤 젤 타입 왁스에 피그먼트를 녹여 눈보 습기 딱딱하게 굳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썹 모양을 잡아준다. 무엇보다 아침에 메이크업한 눈썹 모양이 저녁때까지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이 장점. 썬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 실제로 최대 24시간까지 눈썹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 1.1g 3만2천원. 02-3440-2781. *by 에디터 이지연*

SK-II 제너티스 극광 에센스 더욱 강력한 광채를 뜻하는 '극광'을 담았다는 이 제품은 브랜드 상징인 농속 파테리™ 성분을 기반으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프론 추출물 등이 포함, 피부 본연의 맑고 투명한 스킨 톤으로 개선시켜준다. 1회 권장 사용량이 자동 측정되어 나오는 피켓 형태의 스프레이로 매일 일정한 비율을 사용이 편리하다. 30ml 17만9천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이지연*

롬 포드 페이스먼트 파우더 팁 컬러 비록 비록은 순간 미치 입술 위에 컬러가 코팅된 듯 느껴질 만큼 산뜻한 컬러가 돋보인다. 펜슬 위쪽을 누르면 '뚝뚝' 소리와 함께 스펀지 팁에 내용이 묻어 나온다. 틴트만큼이나 바삭함이 좋지만, 립글로스의 글로시한 마무리까지 갖춰 더 마음에 든다. 물론 롬 포드만의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0.81ml 6만2천원. 02-3440-2696. *by 에디터 이지연*

오라베 코트 다우르 루미나스 헤어 & 바디 오일 **리베르바** 럭셔리 헤어 제품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단연 오라베의 제품을 추천하고 싶다. 제1회 로페즈를 포함한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헤어를 책임지은 헤어 아티스트 오라베의 노하우를 담았으니 효과는 보장할 수 있다. 이브로진, 자스민 등 14가지 자연 성분은 머리카락 보드에 대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편안한 향수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향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 100ml 11만원, 문의 02-3479-1688. *by 에디터 권유진*

코스메 테코르테 AQMW 레스핀 젤 아이리온 펜슬, 젤, 리퀴드 라이너의 장점만을 모아 탄생한 펜슬 타입의 이 아이리온에는 '틴트 젤' 특이하다는 애칭을 붙여 틴트처럼 잘 지워지지 않고 겔 라이너처럼 또렷한 컬러가 특징이다. 더불어 스펀지를 장착해 아이리온을 수정하거나 스마지 효과를 주어 매력적인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0.1g 4만2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권유진*

나스 2016 나스시스트 아이리온도우 팔레트 리모르 푸쥬루 리코르 실크 한층 여성들이 많이 쓰는 아이리온도. 컬러만 달았다. 뉴트럴 컬러부터 포워드 색상까지 무려 12가지 색상을 담은 팔레트. 여행갈때도 이 팔레트 하나면 다양한 룩과 매치할 수 있을 듯. 3.2g 8만5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지연*

룩사방 렌즈 블랑쉬 화이트닝 슬리퍼 마스크 이 제품은 푸딩처럼 탱글탱글한 젤 제형의 크림이 얼굴에 촉촉하고 매끄러운 수분막을 한 겹 낀 후 쉼 스킨하는 뛰어난 흡수력이 단연 돋보인다.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 밤사이 눈에 띄게 보드라운 피펫결과 밝아진 안색을 확인할 수 있을 것. 100ml 9만2천원, 문의 02-3014-2941. *by 아시스트 김수민*

플레드보 보네 로시옹 이드로 아두씨산트 에센스인지 토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촉촉한 로션. 발림성이 뛰어나 얼굴에 바른기 사후엔 자연스럽게 네크 라인까지 데칼데까지 미처하지 않. 크림을 바르는 것을 간편할 정도로 수분감이 충분해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다. 150ml 15만9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배미진*

에르보리안 솔리드 클렌징 오일 이중 세안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제품으로 고체 타입의 오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오일 제형으로 변하고 물에 닿으면 살만한 로션 제형으로 변해, 편안한 메이크업은 간편하게 지워준다. 세안 후에도 오일 특유의 미끈거림이 남지 않고, 피부 당김 없이 촉촉하다. 80g 3만9천원, 문의 02-3014-2966. *by 아시스트 김수민*

레타 W 프라그먼트 랩탈 여름에도 입술이 트는 타입이라 피우지 않아 입이 랩탈을 챙겨 가지고 다닌다. 이 랩탈은 미치 바셀린의 스틱 바진처럼 비록은 순간 부드럽게 스며들고 촉촉함이 오래간다. 입술에 발랐을 때 나는 은은한 아로마틱 향도 마음에 든다. 2.8g 3만2천원. 070-5017-5540. *by 에디터 이지연*

프래쉬 슈가 스킨트 트리트먼트 SPF 30 PA++ 땀물을 연성케 하는 신개념 선크림. 자외선 차단 기능과 함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각종 오일을 함유해 자외선 차단과 보습이 필요한 모든 부위에 사용 가능하다. 휴대하기 편한 용기로 특히 봄과 여름에 액티브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6g 3만2천원. 문의 080-822-9500. *by 아시스트 김수민*



amazing Cream

우리가 기억하는 전설적인 프리미엄 크림이 몇 가지 있다. 시슬리의 시슬리아 크림은 럭셔리 크림을 대표하는 아주 성공적인 제품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시슬리아 크림이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타-이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론칭하고, 푸켓의 아만푸리 리조트에서 그 가치 있는 시작을 알렸다.



품위와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시슬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인 푸켓, 그리고 품격 있는 아만푸리 리조트에서 시슬리의 새로운 크림,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타-이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여전 히 가족 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슬리의 내밀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유지되는, 소수의 프레스만 초청되는 특별한 론칭 행사다. 이렇게 소규모로 각 나라별 뷰티 에디터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슬리의 제품 모두 특별하기 때문이다. 시슬리처럼 제품 라인업 하나하나를 각별히 생각하며 모든 구성에 브랜드의 가치를 오롯이 투영하고자 하는 브랜드도 드물다. 조용하지만 힘 있게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신드롬이라 불러 만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시슬리아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는 의미 깊은 프레젠테이션이었다. 1999년, 벌써 17년 전에 탄생한 이 놀라운 크림이 올해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타-이주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새로운 피부의 마대를 열게 된 것. 시슬리라는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면 프리미엄 또는 럭셔리라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강남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여성들이 선호하는 제품이자 취향이 까다로운 여성들이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들어 올이어, 에일씨옹 에클로지아 같은 제품은 여전히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 프리미엄 뷰티 제품 중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격조로운 불리는 한국의 뷰티업계에서 시슬리가 백조처럼 품위 있는 모습으로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제품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푸켓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인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타-이주 크림 역시 뷰티 에디터들이 기다리던 제품이다. 기존의 시슬리아 글로벌 안티에이지, 간단하게 시슬리아 크림으로 불리던 제품은 뷰티 전문가에게 꼭 소개해보고 싶은 럭셔리 크림 중 하나였다. 1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 안티에이지 크림으로 자리 잡은 제품을 굳이 리뉴얼한다는 것은 브랜드로서도 새로운 도전이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타-이주 안티에이지 제품이라면 역시 노화의 징후를 얼마나 극박하게 만드는지가 관심일 것이다.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타-이주는 내부와 외부 환경에 따른 노화의 증상에 작용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행동 요인, 라이프스타일과 연관된 노화 증상까지 작용한다는 것이 특별한 점이다. 프레젠테이션 중 모든 것이 동일하게 태어난 생동기가 외부 환경에 의해 나이가 들어 오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는 흡연과 자외선 노출, 식습관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피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세포를 변형시키고 세포의 생명주기를 파괴하여 외모에 변화를 준다. 피부도 마찬가지. 특히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포 생명주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전체적인 주기가 방해를 받아 피부 노화의 초기 증상인 주름이 생기고, 광채와 탄력이 손상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새로운 시슬리아의 포뮬러는 이러한 현상에 맞서 새로운 활성 성분을 충분히 담아 피부 세포에 이상적인 예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세포 싸움에서 추후한 후피 스티뮬린 라티나 추출물과 레디스 맨 추출물을 더해 피부에 활력을 준다.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원소, 콩 펩타이드 추출물과 천연 토코페롤, 이데노신 등이 피부 재생과 재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기존 시슬리아 크림에 함유되었던 다양한 활성 성분 세 가지 새로운 활성 성분을 더해 피부 리프팅과 에너지를 물론 수명을 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슬리는 이번 신제품의 가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3백 명이라는 여성을 대상으로 8개의 피부 전문 기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이 신제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더욱 확실히 알릴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바로 인 비보 시험경험. 피부의 더 긴 장도를 분석하는 이 검사를 통해 시슬리 크림을 사용한 여성은 시슬리의 피부부터 진피까지 피부의 모든 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콜라겐 조직과 표피-진피 접합층의 질이 확실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물론 모든 화장품이 진피까지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를 검사 결과를 통해 확실하게 인식시킨 브랜드는 많지 않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름을 완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진피의 건강을 더해주는 제품이 바로 시슬리의 새로운 크림인 것. 피부의 깊은 곳까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림을 찾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지 크림을 표방하는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타-이주가 좋은 해답이 되기를 바란다. 에디터 배미진



1 최상의 럭셔리 스킨케어를 추구하는 시슬리의 이벤트인 만큼 세계 최고의 휴양지인 푸켓의 리조트로 잘 알려진 아만푸리 리조트에서 시슬리아 랭데그랄 앙타-이주의 론칭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2, 3 시슬리를 대표하는 최상위 라인으로 삼키 엘리트 텍스처와 엑스트리 리치 두 가지 버전의 텍스처로 고해상도의 품을 날렸다. 4 17년만의 리뉴얼기에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른 노화뿐 아니라 행동 요인으로 발생하는 노화 증상까지 케어하는 과학적 성취를 담았다.

interview. hose 지네스타 José Ginestar, 시슬리 제품 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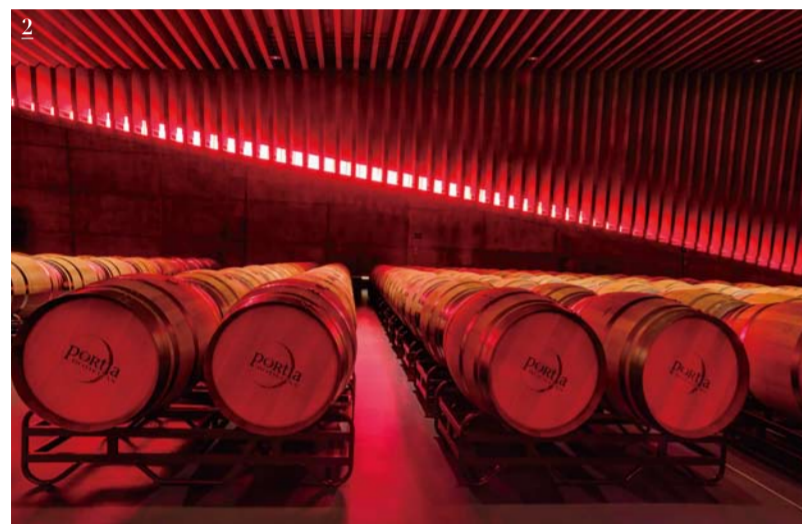
“높은 가치를 지닌 기존 고객들까지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크림이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너무나 사랑받았던 시슬리아 글로벌 안티에이지 크림을 리뉴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던 기존 고객들이 이를 만족감을 느끼고 개선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꼭 리뉴얼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꾸준한 연구 결과, 한 차원 높은 피부 개선을 이룰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 피부 세포 환경을 개선하면 더 효과적인 안티에이지 케어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국에서 시슬리아는 럭셔리 크림으로 유명한데, 시슬리의 제품을 새롭게 개발할 때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지?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할 때 연구소장으로서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향이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기존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도 기존 고객들에게 bli던 테스트를 진행했지요. 비용이 많이 소요될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에 다른 브랜드에서는 상상하지 않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새로운 고객들 기존 고객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리서치를 했고, 놀라운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도 고무적인 결과였지요.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시슬리의 독특한 브랜드 가치와 다른 브랜드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주 많은 시간을 시슬리 패밀리인 미담 도나르도와 의견을 나눕니다. 물론 연구실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운영되고 치열한 연구를 거듭합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 나아가 활 방향을 재정의하는 사람이 바로 도나르다. 이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미담 도나르도는 뷰티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피부 그 자체를 가꾸는 것으로 화장품 개발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번 신제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피부 요인과 환경 요인은 물론 행동 요인으로 생기는 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지요. 주름을 개선하고 탄력과 광채를 부여하기 위해 17년간 연구한 끝에 발견한 세포 환경 개선, 피부 세포에 이상적인 예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가의 아름다운 와인터리

건축가들도 와인을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 자하 하디드, 프랭크 게리, 노먼 포스터 등 스타 건축가들이 와인터리 건축에 뛰어들어 걸작을 남기고 있다. 명품 와인 생산뿐 아니라 와인 애호가들의 와인터리 여행을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세계 와인터리의 건축 작품을 소개한다.



스타 건축가들이 스페인으로 모이는 이유

스페인인의 자랑거리는 요리와 디자인이다. 그 매력적인 요리와 디자인을 경험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거나, 건축가들이 와인터리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먼저 미국 출신이지만 스페인 북부의 렌드마크를 2개나 디자인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 그는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건축 디자인으로 스페인 북부 지방을 최고의 여행지 반열에 올려놓은 일등 공신이다.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터리인 마르케스 데 리스칼(Marqués de Riscal)의 대표 카밀로 후르타도 데 아메지하(Camilo Hurtado de Amézaga)가 구겐하임 뮤지엄의 성공에 감동해 프랭크 게리를 와인터리로 초대했다. 프랭크 게리는 와인터리 건축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카밀로 후르타도 데 아메지하 대표가 프랭크 게리가 태어난 해의 빈티지 와인을 선물하자 마음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프랭크 게리는 오래된 와인 창고에 43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을 만들었는데, 티타늄 강판으로 플라멩코 무희의 드레스가 물결치는 형상을 시각화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워낙 유명한 건축물이다 보니 브레드 피트 부부와 귀네스 펠토스 등의 스타들도 즐겨 찾고 있다. 이곳에서 농치지 말아야 할 순간은 포도밭으로 해가 떨어질 때 티타늄 지붕으로 반사되는 각양각색의 빛, 스위트룸 테라스에서 바라본 와인터리와 농장 풍경이다. 보데가스 포르타아(Bodegas Portia)는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디자인한 미래 지향적 건축물로 여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언덕에 건축물을 올렸으며,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소재인 철, 오크, 유리로 만들었다. 와인 숙성과 저장고는 자연적인 경사면에 건축되었으며, 발효 공간은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혁신적인 건축 요소는 자연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와인 저장고와 수확철이면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최소한의 손상으로 포도를 운반할 수 있는 동선, 그리고 속이 들여다보이는 와인 셀러 등이다. 여행자를 위한 와인 숲의 가구까지 노먼 포스터가 디자인했는데, 높은 선반의 와인을 꺼내기 위한 사다리조차 아름답다. 리오하 지역의 보데가스 이시오스(Bodegas Ysios)는 스페인 출신 건축가이자 미술가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가 설계한 유일한 와인터리 건축물로 명성이 높다. 파도가 출렁이는 듯한 건축물의 지붕은 바로 뒤의 바위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와인터리 건축물 실내에서 바라본 천장의 나무 구조물들은 파노라 건반처럼 부드럽게 이어진다. 이외에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특유의 비정형으로 디자인한 R. 로페즈 드 에레디아 비나 톤도니아(R. Lopez de Heredia Vina Tondonia)와 스페인 건축가 J. 마리오 파스쿠알(J. Marino Pascual)이 디자인한 보데가스 안션(Bodegas Antion), 보데가스 다리엔(Bodegas Darien) 등도 매력적이다. 카스틸로 페렐라(Castillo Perelada)는 현대 건축가

의 작품은 아니지만 미술가 살바도르 달리가 사랑한 와인터리이며, 유리공예품과 와인 박물관, 약 8만 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최대 개인 도서관도 있어 추천할 만하다.

보르도 생테밀리옹의 혁신적 와인터리 건축 디자인

와인터리 여행만큼 낭만적인 것이 또 있을까? 와인터리 여행에서는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특급 와인과 작은 도시의 숨겨진 요리를 곁들일 수 있다. 소도시 특유의 낙낙한 인심과 소매치기나 도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은 보르도다. 게다가 와인터리의 전통적 혹은 혁신적 건축물 역시 감상하는 재미가 독특하다. 프랑스 보르도에서라면 동화 속에서 보았던 작은 성 사토(château)에서 프랑스 와인터리의 역사를 만끽하는 것도 큰 재미다. 하지만 톨레랑스(tolerance, 관용)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전통만이 최고는 아니다. 최근에는 유명 건축가들이 오래된 와인터리에 첨단 건축물을 선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와인 애호가들의 와인터리 여행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만약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 생테밀리옹에 위치한 사토 라 도미니크(Château La Dominique)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된다면 창밖으로 펼쳐진 사토 슈발 블랑(Château Cheval Blanc)과 사토 레방질(Château L'Évangile), 사토 피자크(Château Figeac)의 포도밭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을 것! 보르도를 대표하는 그랑 크뤼 클라세 명품 와인터리들이 드넓게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며 만끽하는 만찬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새롭게 건축물을 디자인했는데, 1층 와인 저장고는 와인 컬러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했고, 북쪽 벽은 거대한 유리로 장식해 저장고가 들여다보인다. 2층에는 와인 컬러의 돌들이 인상적으로 펼쳐진 레스토랑이 위치한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푸짐하면서도 감각적인 음식마저 근사하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식사하러 온 와인 메이커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으니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행운의 레스토랑이 될 듯, 사토 라 도미니크가 와인 컬러의 화려하고 모던한 건축물이라면, 바로 옆에 위치한 사토 슈발 블랑은 구름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곡선미가 매력적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Pritzker)상 수상자인 크리스티앙 드 포르장파르크(Christian de Portzamparc)가 디자인했는데, 화이트 콘크리트로 만든 부드러운 곡선의 와인 셀러가 인상적이다. 2013년, 사토 슈발 블랑의 건축물은 유명한 국제 건축상인 시카고 아테나에움 건축 디자인 뮤지엄(The Chicago Athenaeum Museum of Architecture and Design)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역시 인근에 위치한 사토 포제르(Château Fauge)는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모던한 건축물로



1 보데가스 이시오스는 스페인 건축가이자 미술가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했다. 2 보데가스 포르타아는 노먼 포스터가 디자인한 현대 건축물이다. 3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스페인 북부의 렌드마크 데 리스칼의 전경. 4 프랑스 보르도 생테밀리옹에 위치한 사토 라 도미니크는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을 맡았는데, 2층에 레스토랑도 있어 인기가 높다. 5 미국 나파 밸리의 도미니우스 이스테이트와 아너는 듀오 건축가 헤르조그 & 드 피론의 예술적 디자인으로 완성되었다. 6 소노마 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터리 건축물은 윌리엄스 셀럼으로 와인 양조에 사용하는 상나무를 활용해 만들었다. 7 고전적인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알려진 오퍼스 원 건축물. 8 건축가 렌 초 피아노가 카스텔라레 와인터를 위해 만든 건축물의 와인 저장고에서는 공연과 만찬도 즐길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 '2013 최고의 와인터리 여행상(Best of Wine Tourism Award 2013)'을 수상했을 정도로 건축물과 인근 풍광의 조화가 아름다우며, 그랑 크뤼 클라세답게 와인 애호가의 예약이 이어진다.

건축 디자인이 뛰어난 와인터리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할 만한 디자인의 와인터리를 소개하다 보니, 소위 명품 와인터러들이 건축물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국 디자인 카운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디자인상(IF, IDEA, 레드닷)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이 추가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가를 결정짓는 데는 디자인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와 경기, 사회적 사건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디자인 경쟁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과가 높다는 가설은 확률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에 투자하면 소비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기에, 와인터러들이 건축 디자인에 투자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 와인터리의 가치와 건축 디자인 역시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미국 나파 밸리 프리미엄 와인의 대표인 도미니우스 이스테이트(Dominus Estate)는 스위스 건축가 헤르조그 & 드 피론(Herzog & de Meuron)의 건축물로 유명하다. 헤르조그 & 드 피론은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2008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등을 설계한 듀오 건축가로, 예술적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와인터리의 저장고는 거대한 돌망태로 이루어진 반투명한 벽이 하이라이트인데, 나파 밸리의 현무암을 잘게 쪼개 일반적 돌망태보다 큰 구멍을 낸 것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돌 사이 틈으로 나오는 햇빛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공기 순환에 효율적이다. 도미니우스 와인터리는 엄격한 예약에 의해 소수에게만 공개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나파 밸리 오퍼스 원(Opus One)은 미국 건축가 스콧 존슨(Scott Johnson)이 디자인한 것이다. 마치 자연의 한 부분인 것처럼 건축물은 포도밭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장엄한 디자인은 풍경을 거스르지 않는다. 건축물은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데, 화려하지 않은 보석처럼 우아하다. 계곡 아래를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복도의 전망과 외관과 대조를 이루는 18세기 프랑스 스타일의 인테리어, 스콧 존슨이 직접 디자인한 근사한 가구와 벤들리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제공한 과학적 냉각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 조절에 최적이다. 한편 소노마 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터리 건축물은 윌리엄스 셀럼(Williams Selyem) 와인터리다. 2011년 AIA 아너 어워드 포 디자인 엑셀런스(AIA Honors Award for Design Excellence)를 수상했으며, 건축사무소 다르크 그룹(D. Arc Group)이 설계했다. 와인 양조에 사용하는 재료를 재활용해 건축 소재로 삼았는데, 와인을 보관했던 상나무 울

드 배럴로 벽과 문 등을 만들어 공간 전체에 와인 향기가 감돈다. 와인터리의 역사를 현대 건축물에 그대로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최고의 피노 누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와인터리답게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와인터리 기행을 위한 조언

인기로 치자면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와인도 다른 와인 생산국에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에 여행 간다면 와인터리 투어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키안티 지역에 위치한 카스텔라레 디 카스텔라나(Castellare di Castellina)의 와인 메이커 파올로 파네라이(Paolo Panerai)는 건축가 렌초 피아노(Renzo Piano)와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와인터리 로카 디 프라시넬로(Rocca di Frassinello)를 완공했다. 렌초 피아노는 파리 퐁피두 센터, 일본 간사이 공항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건축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KT 광화문 신사옥을 선보이기도 했다. 로카 디 프라시넬로 와인터리 건축물은 슬림한 철제 프레임과 섬세한 유리 장식의 조화가 돋보인다. 와인터리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숙성고를 지하에 만들어 자연적으로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게 했으며, 2천5백 개의 오크 통을 계단식으로 쌓아 작은 극장처럼 만들어 그곳에서 공연과 만찬도 가능하게 했다. 카스텔라레는 1970년대 말 파올로 파네라이의 소유가 된 이래 산초베토라는 토착 품종의 발전과 그에 대한 투자와 연구 덕분에 품질 좋은 키안티 클라시코의 생산자로 알려졌다. 또 친환경 와인 제조자로서 제조제와 화학비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멸종 위기 동물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각가 산드로 키아(Sandro Chia)가 소유한 토스카나 지역의 카스텔로 로미토리오(Castello Romitorio)와 미술가 잔카를로 페라리스(Giancarlo Ferraris)와 협업하고 있는 피에몬테 지역의 와인터리 미켈레 키아를로(Michele Chiarlo)도 기억해두자. 카스텔로 로미토리오에는 곳곳에 산드로 키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미켈레 키아를로는 종탑과 조경, 아트 파크, 아트 레이블로 유명하다. 아르헨티나의 와인터리 중 보데가 디아만데스(Bodega DiamAndes)는 '최고의 와인터리 여행상(Best of Wine Tourism 2011)' 등을 수상한 바 있는 매력적인 곳이며, 리조트 산업도 병행하는 오푸우르니에르(Ofournier)는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이제 2016년의 새로운 여행 계획을 준비하며, 와인터리를 리스트에 올려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무미건조한 이성과 감성에 문화 충격을 선사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려면, 전통과 현대의 노하우가 집약된 와인터리 건축물 투어만큼 근사한 테마는 아마 없을 것이다. **SI**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종사하다), (서울, 그 카페 출판) 저자

SHOWROOM



반클리프 아펠 비트윈 더 핑거 링 반클리프 아펠은 봄을 맞아 행복과 자유를 상징하는 나비 모양을 모티브로 한 '투 버터플라이 마더오브벌 컬렉션'의 비트윈 더 핑거 링을 소개한다. 반클리프 아펠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오소 초록 하얀 변형성을 반영해 탄생시킨 링으로, 한 가지 링을 한 손가락 혹은 두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핑크 골드 버터플라이 모티브에는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반대편에는 진주총을 세팅해 우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지어낸다. 투 버터플라이 마더오브벌 컬렉션은 비트윈 더 핑거 링을 비롯해 펜던트, 이어링 등 총 37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된다. 문의 00798-852-16123

오메가 창립 부티크 리뉴얼 오픈 오메가는 창립에 위대한 오메가 부티크를 브랜드의 기원과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다. 총 5층 규모로 확장한 오메가 부티크는 1층과 2층은 남녀 시계, 파인 주얼리, 가죽 제품 등 전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 3층과 4층은 브랜드의 역사와 유산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미며, 5층은 특별한 VIP 고객 행사와 프라이빗 라운지로 구성된다. 창립 부티크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VIP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디올 자더르 오 드 푸알레 디올은 봄에 어울리는 신뜻한 향취의 여성용 향수 자더르 오 드 푸알레를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자더르의 플로럴 시그니처에 상쾌함을 더한 것으로, 따뜻한 봄날을 연상케 하는 섬세한 향취가 매력적이다. 발로리산 네롤리의 플로럴 향과 블러드 오렌지 에센스가 선사하는 달콤한 시트러스 향이 어우러진 신뜻한 향취가 아이치디가 스텝리퍼 샌드우드 에센스의 관능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향으로 마무리된다. 문의 080-342-9500

에스티 로더 뉴디멘션 컬렉션 에스티 로더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가꿔줄 뉴디멘션 컬렉션을 소개한다. 37가지 컨투어링 제품이 포함된 뉴디멘션 컬렉션은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적인 포뮬러로 특정 부위를 탄력 있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2단계의 아이트리트먼트로 눈가를 더욱 매끄럽고 균일한 톤으로 완성해줄 뉴디멘션 펌 + 필 아이 시스템, 수분을 제공해 생기와 볼륨감 있는 입술을 연출해주는 뉴디멘션 플럼프 + 필 엑스퍼트 립 트리트먼트, 그리고 세이빙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부드러운 포뮬러가 목과 가슴 부분에 자연스러운 탄력을 선사하는 뉴디멘션 타이튼 + 톤 케어 트리트먼트로 구성된다. 문의 02-3440-2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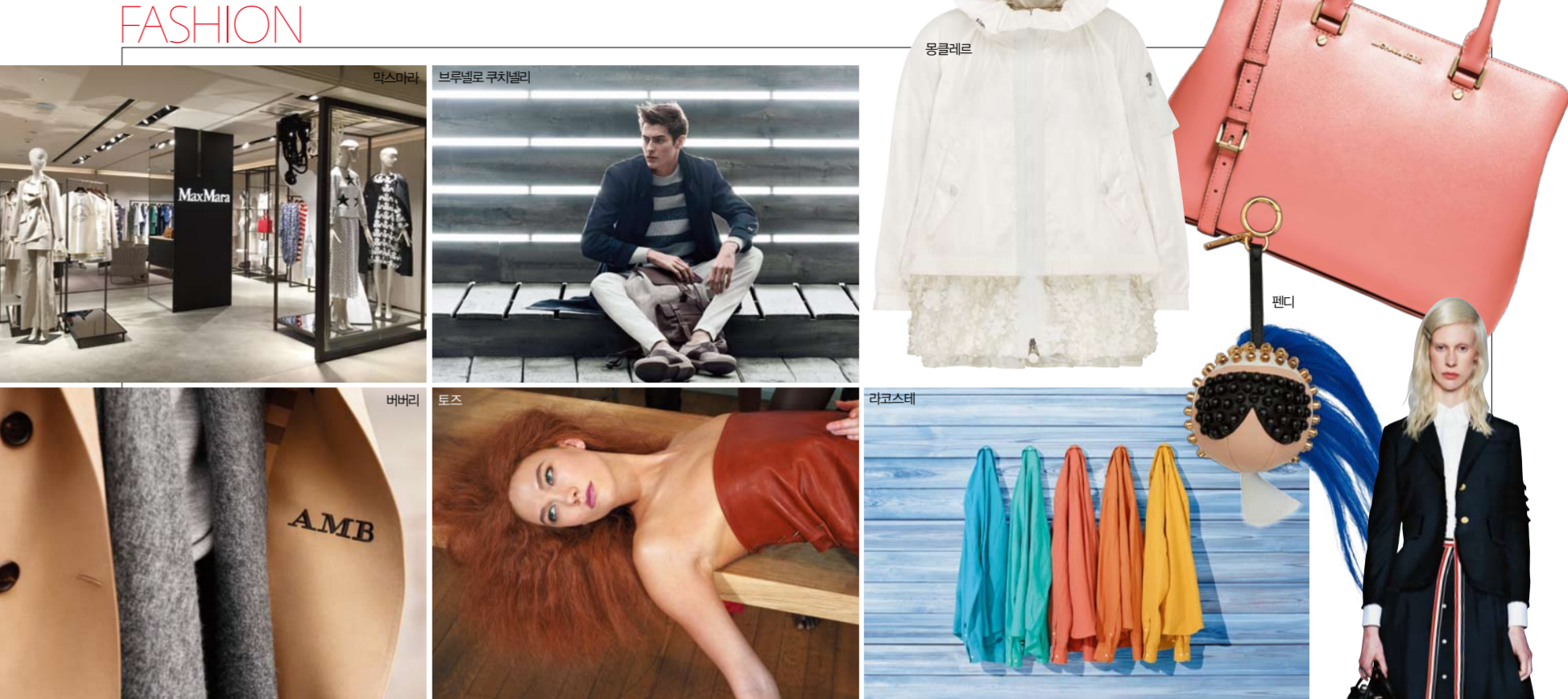
사슬리 백화점 고객 사은 행사 사슬리는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아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사은 행사를 개최한다. 사슬리 제품을 5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다크 그린 컬러의 멀티 케어와 건성 피부 위한 클린징 밀크, 인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으로 구성된 트레블 5중 키트를 증정한다.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며, 한정 수량으로 제공한다. 전국 사슬리 백화점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80-549-0216

클라린스 클라린스 맨 스킨케어 클라린스 클라린스 맨의 리뉴얼 제품으로 비싼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남성을 위한 스킨케어 루틴을 제공한다. 피부 진정 효과에 탁월한 알파인 씨 홀리 성분을 추가한 클라린스 맨의 대표 수분 라인 수퍼모이스처의 젤과 밤으로 끈적임 없이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한다. 또 인티에이징에 약속하지 않은 남성용을 위해 37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라인-컨트롤 트리오로 눈가를 비롯한 얼굴 전체의 주름을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스페셜 케어로 마무리한다. 클라린스가 제공하는 스킨케어 루틴은 각종 유해 환경으로 인한 자외선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문의 080-542-9052



10

이저로 이저로 이저로는 파리의 감성을 가득 담은 여성용 향수 마드모아젤을 출시한다. 튀앙리 정원에서 받은 영감으로 탄생한 이 향수는 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과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오렌지 불로뉴와 피치가 어우러진 플로럴 프루티 계열의 향으로 발랄함을, 아이리스 우드와 새릴가 향취로 우아한 여성의 느낌을 선사한다. 니콜 키드먼, 캐머런 디아즈 등 많은 셀러브리티의 사랑을 받는 패션 브랜드 이저로에서 출시한 향수인 만큼 패션을 사용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에게 어울릴 듯. 문의 02-3443-1806



맥스마라 매장 오픈 맥스마라는 브랜드 확장의 일환으로 신규 매장과 리뉴얼을 거친 새로운 콘셉트의 매장을 다수 선보인다. 맥스마라 매장에서는 맥스마라, S 맥스마라, 스포트맥스 등 다양한 라인의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 본관 3층에 자리 잡은 워커힌 맥스마라 단독 매장은 시작으로,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3층에 선보인 맥스마라 스토어, 이탈리아 두차오 그라스 건축 스튜디오의 혁신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한 모던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맥스마라 스토어, 그리고 4월에 오픈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 등 총 18개의 맥스마라 매장과 2개의 워커힌 드 맥스마라 단독 매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문의 02-3467-8326

몽클레르 트윌스트 컬렉션 몽클레르는 2016 S/S 시즌을 맞아 화이트를 담은 여성 컬렉션 트윌스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트윌스트 컬렉션은 기존의 메인 컬렉션보다 유니크한 것이 특징. 이번 여성 트윌스트 컬렉션은 디자인 차스 재임스의 절개법과 구조, 스카트 슈트의 소재와 텍스처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무수한 스타일로 재해석했으며, 가벼운 무게의 나일론, 레오 폴리 에스테르, 테크니컬 패브릭 플러워 장식 등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했다. 문의 02-514-0900

리코스테 프렌치 프리미엄 린넨 컬렉션 리코스테는 컬러감이 돋보이는 '프렌치 프리미엄 린넨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완벽한 데일리를 위한 아이템을 테마로 삼은 린넨 컬렉션은 손쉬운 세탁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리넨을 사용한 데일리의 웨어로 구성된다. 청량감이 느껴지는 솔리드 컬러부터 투톤, 체크 패턴 등 다채로운 컬러와 패턴을 사용한 것이 특징. 티셔츠, 폴로 셔츠 등 기존에 선보였던 아이템에 재킷, 팬츠, 원피스를 더했다. 문의 02-542-9101

사키아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사키아는 서울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디자인어 치토세 아 베가 이고는 이 브랜드는 다양한 요소와 레이어링을 특징, 티셔츠, 폴로 셔츠 등 기존에 선보였던 아이템에 재킷, 팬츠, 원피스를 더했다. 문의 02-542-9101

마이클 코어스 피치 컬렉션 마이클 코어스는 2016 S/S 시즌을 맞아 봄의 감성이 담긴 '피치 컬렉션'을 소개한다. 자유로운 가든 파티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이번 컬렉션은 페이닌 무드를 콘셉트로, 사랑스러운 라이트 피치, 핑크 그레이프 프루트 컬러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의상과 함께 핸드백, 슈즈, 주얼리 등 다양한 액세서리 아이템을 선보인다. 피치 컬렉션의 백은 소가죽, 양가죽 등 터키감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지어내며, 내부 지퍼 포켓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토트와 슬더, 그리고 체인 등 37가지 디자인으로 출시한다. 문의 02-546-6090

브루넬로 쿠차렐리 트렌치 재킷 브루넬로 쿠차렐리는 클래식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남성용 트렌치 재킷을 출시한다. 모던한 네이비 톤이 돋보이는 트렌치 재킷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함께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특히 환절기에 적합한 패션 아이템으로, 포말한 룩부터 캐주얼한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울, 가죽이면서 클라시한 스타일을 완성하고 싶다면 브루넬로 쿠차렐리 트렌치 재킷을 선택해볼 것. 문의 02-3448-2931

로베르 콜레저리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 로베르 콜레저리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로베르 콜레저리 매장 오픈을 기념해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를 진행했다. 브랜드 론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는 로베르 콜레저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플라망 유레가 디자인한 87가지 컬러의 플레인, 77가지 컬러의 페르포에이트 어퍼웨어, 그리고 4가지 컬러 솔(sole)의 조합으로 607가지 스타일의 슈즈가 제작 가능하다. 전문 슈메이커가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려해 컬러 조합을 추천해주며, 브랜드의 독창적인 기술로 무게를 줄인 마이크로 솔을 사용한다. 오직 한 곳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 팝업 스토어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479-1556

토비아스 레베르거 컬래버레이션 MCM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독일의 현대 예술가 토비아스 레베르거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 오는 4월 22일 홍콩에서 발표되는 'MCM X 토비아스 레베르거 컬렉션'은 1970~80년대 독일 뮌헨의 여성들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으로, 반복되는 로고로 완성한 카무플라주 그래픽 패턴이 돋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백팩, 쇼퍼 백, 파우치 등으로 구성되며, 플래그십 스토어와 명품 매장이 브랜드 스토어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2-511-0234

버버리 헤리티지 트랜치코트 모노그래밍 서비스 버버리는 버버리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인 헤리티지 트랜치코트에 특별함을 더해줄 모노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1879년 토마스 버버리가 발명한 개비던 트랜치코트에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이니셜을 새기는 서비스로 나만의 트랜치코트를 완성할 수 있다. 블랙, 페이퍼 레드, 옐로, 라일락 등 15가지 컬러와 37가지 폰트 옵션을 갖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제작 가능하다. 버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선택해 온라인상에서 실제 코트에 어떤 색으로 실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니셜 추가 가격은 22만원이다. 문의 02-3485-6536

토트 VB 핸드메이드 퍼포먼스 토트는 2016 F/W 시즌 컬렉션과 함께 토트의 장인 장과 기술력을 예술

로베르 콜레저리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 로베르 콜레저리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로베르 콜레저리 매장 오픈을 기념해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를 진행했다. 브랜드 론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는 로베르 콜레저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플라망 유레가 디자인한 87가지 컬러의 플레인, 77가지 컬러의 페르포에이트 어퍼웨어, 그리고 4가지 컬러 솔(sole)의 조합으로 607가지 스타일의 슈즈가 제작 가능하다. 전문 슈메이커가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려해 컬러 조합을 추천해주며, 브랜드의 독창적인 기술로 무게를 줄인 마이크로 솔을 사용한다. 오직 한 곳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 팝업 스토어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479-1556

로베르 콜레저리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 로베르 콜레저리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로베르 콜레저리 매장 오픈을 기념해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를 진행했다. 브랜드 론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는 로베르 콜레저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플라망 유레가 디자인한 87가지 컬러의 플레인, 77가지 컬러의 페르포에이트 어퍼웨어, 그리고 4가지 컬러 솔(sole)의 조합으로 607가지 스타일의 슈즈가 제작 가능하다. 전문 슈메이커가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을 고려해 컬러 조합을 추천해주며, 브랜드의 독창적인 기술로 무게를 줄인 마이크로 솔을 사용한다. 오직 한 곳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 팝업 스토어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479-1556